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wavy bands in various shades of pink,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The bands are smooth and fluid, with some darker and some lighter tones, set against a plain white background.

농업·농촌경제동향

2013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1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zzangdh@krei.re.kr/심민희 min2727@krei.re.kr

채상현 csh0331@krei.re.kr)

연락처: 02-3299-4363 / 팩스: 02-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15
2. 농림어업 취업자	20
3. 농축수산물 수출입	21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4
3. 양념채소	40
4. 과일	49
5. 과채	58
6. 축산	66

특별 주제 1. 스마트 농업의 사례와 발전방안	75
2. 귀농·귀촌 동향과 전망	90

【요약】

I. 국내경제 동향

- 2013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함.
- 2013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전기 대비 1.1% 증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2013년 3/4분기 총수출은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2013년 9월 취업자는 25,46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63천명 증가함.
- 2013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증가,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함.
- 2013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4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실질로는 1.3% 증가)함.
- 2013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분기와 같으나, 전년 동기대비 1.4% 하락함.
- 2013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0.9% 감소(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5% 증가)하였으며, 2013년 8월중 광의통화(M2, 평잔)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0.1% 감소함.
- 2013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1,075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109원 보다 34원 하락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13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7.9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0.8% 상승함.
- 2013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일부 채소류와 사과, 배 등의 과일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쌀과 배추, 무, 느타리 등의 품목은 상승함.
- 2013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1.5로 전년 동기대비 1.5% 하락, 전분기 대비 1.7% 상승함.
- 2013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724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 2.3% 증가함.
- 2013년 1~9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5,706백만 달러임.
- 2013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25,30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III.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스마트 농업의 사례와 발전방안

- 스마트 농업은 IT 기술이 농산업(6차 + α)과 융합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또한 스마트 농업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GIS 및 농촌지역의 정보와 결합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스마트 농업의 구현으로 생산·유통·소비·농업·농촌 부분에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친 생산성·효율

성·품질 향상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생산부문에서는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등으로 스마트 농장이 탄생하고 있음.
- 유통부문에서는 새로운 정보기기를 통해 시장에 직접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부문에 있어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스마트 소비가 가능해지고, 도-농간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농촌분야에서는 지역의 실제 날씨를 반영한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농촌 관광정보의 제공은 농업·농촌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GIS를 통해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촌 관광 등 수요증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분야별 주요 사례는 ① 스마트 원예(온실자동제어) ② 스마트 축산 (Pig Plan) ③ 스마트 임업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④ 스마트 유통 (공급사슬관리 정보시스템) ⑤ 스마트 지리정보(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 ⑥ 스마트 농촌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촌관광정보 제공) 등임.
- 분야별 발전방안 첫째, 원예 부문의 경우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축산 부문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앱 개발, 사용자 능력 배양 등이 시급한 선결 과제임.

- 넷째,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공동선별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지리정보는 단일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농촌활력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화 된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에 대한 IT 활용에 관한 교육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 기존 농식품 분야 IT 융합 관련사업의 운영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R&BD 방식의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귀농·귀촌 동향과 전망

- 최근 몇 년 사이의 귀농·귀촌 인구 급증 현상을 배경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농촌 인구 비율은 최근 40년 여 동안 빠르게 하락하다가 2005년 이후 18% 대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귀촌, 즉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05년 이후로 귀촌 인구 총량은 안정된 기조를 유지한 반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반대 방향의 인구 이동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짐작할 수 있음.
- 귀농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①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본격화, ② 도시의 노동시장 구조가 불안정 ③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 등임.

- 귀농 인구를 전망하는데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실정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귀농 가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추정하려 시도함.
- 추정 결과, 귀농 가구 수는 당분간 꾸준히 증가하여 약 2020년경에는 최소 1만 5,400가구에서 최대 4만 5,875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이 정도 규모의 귀농 인구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임.
- 귀농 인구를 농업 부문에 새로이 진입하는 비중있는 신규 경영인력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 개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여럿 있지만,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 정부가 귀농·귀촌 인구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자제하고 귀농·귀촌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

I.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3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대비 3.3%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제품, 음식료품,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1.6% 증가함. 농림어업은 벼, 양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0% 증가함.
 -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교육이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음식숙박, 금융보험, 문화·오락이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7% 증가함.
- 2013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 전기 대비 1.1% 증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2013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2.7% 증가,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함.
- 2013년 3/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어나 전기 대비 1.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2013년 3/4분기 총수출은 일반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9% 감소,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1	2012p					2013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3.7	2.0	2.8	2.4	1.6	1.5	1.5	2.3	3.3
최종소비지출 (민 간)	2.3 2.4	2.2 1.7	2.1 1.3	1.6 1.0	2.1 1.7	2.8 2.7	1.4 1.5	2.3 1.8	2.4 2.2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1.0	-1.7	3.7	-2.6	-2.5	-4.2	-3.8	2.9	5.6
(설 비)	-4.7	-2.2	-0.4	-3.1	-0.3	-4.2	2.4	7.2	8.0
총 수 출	3.6	-1.9	8.8	-3.5	-6.9	-5.2	-11.9	-4.6	1.8
총 수 입	9.1	4.2	5.7	3.5	3.2	4.4	3.4	5.7	2.9
	6.1	2.5	4.7	0.5	1.4	3.5	1.8	4.7	2.9

주: 2012p, 2013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3년 연간 GDP 성장률은 2.8%를 보일 전망이며, 2014년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향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 산업단지 건설 확대 등으로 금년중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e)}			2014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2.0	1.9	3.6	2.8	3.9	3.7	3.8
민 간 소 비	1.7	1.6	2.1	1.9	3.3	3.3	3.3
설 비 투 자	-1.9	-8.2	6.3	-1.2	7.8	3.8	5.7
건 설 투 자	-2.2	5.2	6.9	6.1	1.9	1.5	1.7
상 품 수 출	3.8	5.3	5.7	5.5	4.8	9.4	7.2
상 품 수 입	1.5	3.3	4.3	3.8	3.8	9.8	6.9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3.10.10. 발표한 「2013~14년 경제전망」 참고

2. 2013^{e)}, 2014^{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3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년 동기, 전월과 같은 수준임.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 2013년 9월 취업자는 25,46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63천명 증가함.
- 9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0%로 전년 동월과 전월보다 0.1%p 하락함.
- 9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 숙박및음식점업(8만3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2만1천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1만2천명) 등에서 감소함.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2012					2013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5,501	24,873	25,844	25,760	25,526	25,091	26,138	26,187	1.7
(경제활동참가율)	61.3	60.1	62.3	61.8	61.1	59.9	62.2	62.1	0.5
취업자	24,681	23,927	25,003	24,989	24,804	24,184	25,326	25,410	1.7
· 농림어업	1,528	1,176	1,713	1,706	1,518	1,167	1,686	1,724	1.1
· 광공업	4,120	4,051	4,076	4,141	4,210	4,172	4,199	4,167	0.6
(제조업)	4,105	4,037	4,061	4,126	4,196	4,156	4,182	4,152	0.6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9,033	18,700	19,214	19,143	19,075	18,845	19,442	19,519	2.0
(건설업)	1,773	1,721	1,807	1,772	1,792	1,656	1,801	1,775	0.2
실업자	820	947	841	770	722	907	812	777	0.9
실업률(계절조정)	-	3.5	3.3	3.1	3.0	3.3	3.1	3.1	0.0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2. 9		2013. 8		2013. 9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5,755	2.7	26,074	1.8	26,186	1.7
취업자	25,003	2.8	25,291	1.7	25,466	1.9
(고용률)	(60.0)		(60.0)		(60.4)	
·농림어업	1,711	0.8	1,721	1.6	1,737	1.5
·광공업	4,167	3.5	4,132	0.2	4,189	0.5
(제조업)	4,153	3.5	4,116	0.1	4,174	0.5
·건설업	1,781	3.4	1,746	-0.4	1,788	0.4
·도소매·음식숙박업	5,585	3.0	5,646	0.7	5,657	1.3
·전기·운수·통신·금융	2,991	-0.4	3,108	4.7	3,075	2.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8,768	3.8	8,939	2.6	9,020	2.9
실업률	2.9		3.0		2.7	
(계절조정)	(3.1)		(3.1)		(3.0)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3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7%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1.8% 증가함.
- 2013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는 감소(전월 대비 0.3%)하였으나, 준내구재(1.7%), 비내구재(0.2%)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증가,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p	2/4p	7월p	8월p
소매 판매	4.5	2.3	2.8	1.4	2.6	2.5	0.2	1.1	1.0	2.5
(내구재) ¹	10.6	5.3	4.4	2.9	6.6	7.5	1.2	2.3	1.2	1.3
(준내구재) ²	3.7	-1.1	-0.3	-1.0	-3.5	0.3	1.8	0.9	-0.1	5.9
(비내구재) ³	2.1	2.3	3.3	1.6	3.0	1.0	-1.0	0.7	1.3	2.0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3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4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실질로는 1.3% 증가)함.
 - 경상소득은 3.0% 증가, 비경상소득은 10.7% 감소
 - 재산소득(-4.1%)을 제외한 근로소득(3.4%), 사업소득(1.1%), 이전소득(5.2%) 증가에 기인하여 경상소득 증가

- 2013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실질로는 0.4% 감소)함.
 - 에어컨, 제습기 등 가전 소비 증가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9.1%), 주택수선비 등 주거기 상승 등으로 주거·수도·광열(6.5%)이 증가
 - 오락·문화(3.2%),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지출액은 증가하고, 기타상품·서비스(-8.2%), 통신(-1.4%) 등의 지출액은 감소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소 득	5.8	6.1	6.9	6.2	6.3	5.4	1.7	2.5
(경상소득)	6.1	6.2	7.4	6.2	5.9	5.4	2.1	3.0
(비경상소득)	-3.0	4.3	-2.5	4.8	17.7	4.2	-8.5	-10.7
소 비 지 출	4.6	2.7	5.3	3.6	1.0	1.4	-1.0	0.7
(식료품·비주류음료)	7.1	2.9	5.9	1.8	4.2	0.0	-1.6	1.1
(의류·신발)	7.4	5.9	5.8	9.3	2.1	5.2	4.8	0.5
(교 통)	8.7	2.4	3.6	2.6	-3.4	7.8	1.9	0.9
(교 육)	-0.7	-2.1	-0.2	0.2	-6.1	-1.4	-6.9	0.9
(음식·숙박)	2.8	4.2	7.9	6.2	3.0	0.4	-0.1	0.4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3년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으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대비 1.2% 상승함.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상품은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0.3%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대비 3.8% 각각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대비 0.8% 각각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2%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6.3 (2.2)	105.9 (3.0)	106.1 (2.4)	106.4 (1.6)	106.7 (1.7)	107.4 (1.4)	107.3 (1.1)	107.7 (1.2)
상 품	108.9 (3.0)	108.5 (4.1)	109.0 (4.0)	109.0 (2.2)	109.2 (2.2)	110.1 (1.5)	109.6 (0.6)	110.2 (1.1)
농축수산물	112.6 (3.1)	112.8 (2.3)	112.6 (5.8)	113.3 (1.3)	111.9 (3.4)	114.6 (1.6)	111.3 (-1.2)	112.7 (-0.5)
공업 제품	107.9 (2.9)	107.5 (4.3)	108.2 (3.5)	107.6 (1.8)	108.2 (1.7)	108.6 (1.0)	108.3 (0.1)	108.7 (1.0)
서 비 스	104.2 (1.5)	103.9 (2.2)	103.9 (1.3)	104.3 (1.1)	104.7 (1.4)	105.3 (1.3)	105.4 (1.4)	105.7 (1.3)
집 세	108.3 (4.1)	107 (5.0)	108.1 (4.5)	108.8 (4.0)	109.5 (3.4)	110.2 (3.0)	111.0 (2.7)	111.6 (2.6)
공공서비스	100.1 (0.5)	99.9 (-0.2)	100.2 (0.7)	100.2 (0.6)	100.2 (1.1)	100.9 (1.0)	101.0 (0.8)	100.7 (0.5)
개인서비스	104.8 (1.1)	104.8 (2.4)	104.3 (0.6)	104.9 (0.6)	105.2 (0.7)	105.8 (1.0)	105.7 (1.3)	106.2 (1.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5.9	106.3	107.0	107.4	107.7	107.9
상 품	107.9	108.8	110.4	109.6	110.2	110.7
농축수산물	110.0	112.0	117.8	110.4	114.4	113.3
공업 제품	107.0	107.5	108.4	108.5	108.3	109.3
서 비 스	104.2	104.4	104.4	105.6	105.8	105.7
집 세	108.6	108.8	109.0	111.4	111.6	111.8
공공서비스	100.1	100.2	100.2	100.7	100.7	100.7
개인서비스	104.8	105.1	104.9	106.1	106.4	106.2

자료: 통계청

- 2013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분기와 같으나, 전년 동기대비 1.4% 하락함.
-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1.8% 하락함.
-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3.5로 채소, 수산물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 하락함.
- 9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5.0으로 전기및전자기기, 석유 및 화학제품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0.1% 하락함.
 - 서비스는 금융및보험 등이 올랐으나, 음식점및숙박, 운수 등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전월 대비 포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7.5 (0.7)	108.3 (2.9)	108.1 (0.9)	107.2 (-0.2)	106.2 (-0.9)	106.3 (-1.9)	105.7 (-2.2)	105.7 (-1.4)
농림수산물	108.3 (0.8)	111.9 (-1.9)	109.4 (4.0)	109.2 (1.7)	102.8 (-0.3)	105.6 (-5.7)	100.9 (-7.8)	102.8 (-5.9)
광 산 품	105.7 (3.5)	105.4 (4.8)	106.2 (5.3)	105.8 (3.1)	105.3 (0.8)	106.8 (1.3)	107.6 (1.3)	108.3 (2.4)
공 산 품	108.6 (-0.4)	110.1 (3.1)	109.7 (-0.2)	107.9 (-1.8)	106.6 (-2.5)	106.4 (-3.4)	105.4 (-3.9)	105.1 (-2.6)
전력/수도/가스	113.7 (7.5)	112.7 (10.1)	112.5 (8.2)	114.4 (7.6)	115.4 (4.3)	118.5 (5.1)	120.0 (6.7)	120.3 (5.1)
서 비 스	104.2 (1.6)	103.8 (2.1)	104.2 (1.6)	104.2 (1.5)	104.4 (1.4)	104.2 (0.4)	104.3 (0.1)	104.7 (0.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6.6	107.2	107.6	105.5	105.8	105.7
농림수산물	104.9	110.2	112.5	99.8	105.2	103.5
광 산 품	106.2	105.9	105.3	108.3	108.2	108.2
공 산 품	107.4	107.9	108.4	105.1	105.2	105.0
전력/수도/가스	112.4	115.4	115.4	120.0	120.4	120.4
서 비 스	104.2	104.3	104.2	104.5	104.7	104.7

자료: 한국은행

- 2013년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8로 전분기 대비 0.7% 하락, 전년 동기대비 2.8% 하락함.
- 9월 수출물가지수는 93.1로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6%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대비 0.8% 하락함.
-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3.7로 전월 대비 3.5%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14.0% 하락함.
-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3.1로 석탄·섬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및 섬유·가죽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6%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97.9 (-2.4)	100.3 (-0.7)	100.0 (-0.7)	97.5 (-1.3)	93.6 (-6.8)	93.8 (-6.5)	95.5 (-4.5)	94.8 (-2.8)
농림수산물	111.5 (-2.8)	116.1 (8.4)	112.8 (2.8)	114.6 (-2.3)	102.7 (-17.7)	99.2 (-14.6)	101.0 (-10.4)	96.3 (-16.0)
농 산 물	145.0 (23.8)	124.4 (8.1)	141.8 (34.3)	169.1 (42.0)	144.6 (12.4)	149.5 (20.1)	157.5 (11.0)	155.8 (-7.9)
수 산 물	103.1 (-9.8)	113.8 (7.4)	105.4 (-4.4)	101.1 (-13.6)	92.3 (-25.7)	86.3 (-24.2)	86.2 (-18.3)	80.2 (-20.6)
공 산 품	97.8 (-2.4)	100.2 (-0.7)	100.0 (-0.7)	97.4 (-1.3)	93.5 (-6.7)	93.7 (-6.5)	95.5 (-4.5)	94.8 (-2.7)
화 학 제 품	111.7 (-2.2)	115.6 (0.1)	114.1 (-1.1)	109.2 (-4.3)	107.9 (-3.4)	109.0 (-5.7)	108.6 (-4.8)	108.1 (-1.0)
제1차금속제품	100.6 (-6.4)	103.5 (-3.9)	103.9 (-4.3)	99.6 (-7.8)	95.2 (-9.8)	93.6 (-9.6)	91.9 (-11.6)	88.9 (-10.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97.5	97.5	97.6	96.0	95.3	93.1
농림수산물	118.7	116.2	108.9	98.0	97.1	93.7
농 산 물	180.1	178.3	148.9	158.1	156.7	152.5
수 산 물	103.4	100.8	99.0	81.9	81.1	77.8
공 산 품	97.4	97.4	97.6	95.9	95.3	93.1
화 학 제 품	108.7	108.8	110.2	108.6	108.9	106.7
제1차금속제품	100.5	98.7	99.6	89.3	90.0	87.5

자료: 한국은행

- 2013년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03.5로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대비 5.9% 하락함.
- 9월 수입물가지수는 102.1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대비 8.1%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3.8%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전월 대비 2.1% 하락함.
 -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2.9%, 2.0% 하락함.
-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8.6으로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대비 7.9%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10.8 (-0.7)	115.4 (5.3)	112.8 (0.7)	110.0 (-0.9)	105.0 (-7.7)	103.9 (-10.0)	103.8 (-8.0)	103.5 (-5.9)
농림수산물	107.3 (-7.4)	108.9 (-9.1)	109.8 (-6.6)	107.0 (-6.0)	103.5 (-8.0)	103.2 (-5.2)	104.9 (-4.4)	100.6 (-6.0)
농 산 물	111.1 (-10.1)	112.4 (-13.8)	113.0 (-11.0)	111.4 (-7.7)	107.7 (-7.5)	106.8 (-5.0)	105.5 (-6.6)	98.6 (-11.5)
축 산 물	110.9 (2.9)	110.9 (1.4)	113.0 (8.8)	110.5 (4.2)	109.2 (-2.3)	109.0 (-1.7)	113.0 (0.0)	111.9 (1.2)
광 산 품	130.6 (1.9)	138.8 (16.1)	132.6 (2.2)	129.9 (0.6)	-121.1 (-9.8)	121.2 (-12.7)	120.8 (-8.9)	122.7 (-5.6)
공 산 품	102.6 (-1.7)	105.8 (0.9)	104.6 (0.3)	101.6 (-1.4)	98.2 (-6.5)	96.7 (-8.6)	96.7 (-7.5)	95.6 (-5.9)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2			2013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8.5	110.3	111.1	103.8	104.5	102.1
농림수산물	106.6	107.6	107.0	102.3	101.0	98.6
농 산 물	110.4	112.6	111.1	100.6	98.9	96.2
축 산 물	109.9	109.8	111.9	113.0	112.4	110.5
광 산 품	125.9	131.5	132.5	121.8	124.4	121.8
공 산 품	101.2	101.4	102.2	96.4	96.4	94.1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3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0.9% 감소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5% 증가).
- 2013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0.1% 감소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
 - 세금납부 대기자금 및 법인들의 일시 여유자금 예치분이 세금납부 등으로 인출된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5%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6.3%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0.8%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7.3% 증가).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2		201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 ¹	5.3	5.8	5.8	8.0	7.4	8.7	8.4	10.2	10.7	9.5
M2 ²	4.4	4.5	4.8	5.3	5.0	5.1	4.8	4.9	4.6	3.9
Lf ³	7.1	7.3	7.7	8.1	6.8	6.9	6.8	6.6	6.5	6.3
본원통화 ⁴	8.3	9.6	5.1	8.8	13.2	8.8	11.3	11.5	11.1	13.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3년 9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美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조기시행 전망으로 상승하였다가 美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 영향 등으로 반락
 - 회사채금리는 신용경계감 증대,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
 -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는 9월중 금리차익거래 유인 축소, 글로벌 채권형 펀드 순유출 지속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
- CD(91일) 금리는 발행부진 등의 영향으로 8월말 수준 유지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고채(3년)	2.75	2.70	2.60	2.55	2.59	2.87	2.91	2.94	2.90
콜 금 리 ¹	2.76	2.75	2.74	2.75	2.55	2.49	2.48	2.50	2.50
CD유통수익률(91일)	2.86	2.83	2.81	2.80	2.72	2.69	2.68	2.66	2.66
회 사 채 ²	3.20	3.06	2.95	2.91	2.96	3.24	3.38	3.33	3.29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9월말 원/달러 환율은 1,075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109원 보다 34원 하락함.
 - 9월중에는 업체의 달러화 공급 우위,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유지 결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월말 미 정부의 재정협상 관련 불확실성 대두 등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1,070원대에서 등락

- 9월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31원 하락한 1,099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090	1,083	1,063	1,087	1,083	1,111	1,103	1,128	1,144	1,120	1,109	1,075
원/100엔	1,366	1,310	1,235	1,196	1,172	1,181	1,127	1,118	1,158	1,144	1,130	1,099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II. 농촌경제 동향²⁾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3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7.9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 0.8% 상승함.
- 식료품 중 특히 과실류가 전년 동기대비 43.9%로 크게 하락하였음.
- 농업용품의 경우는 농업용 기계가 전년 동기대비 3.7% 상승하였고, 사료, 비료가 각각 2.2%, 1.1%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오름.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9.6	110.1	111.0	107.7	109.0	107.0	107.9	-2.9	0.8
식료품(이외)	108.2	108.0	106.9	106.1	106.1	105.6	105.5	-1.3	-0.1
곡물	126.2	126.9	126.8	130.9	133.4	133.8	133.9	5.6	0.1
채소	102.1	89.6	102.3	102.8	117.5	90.1	93.3	-8.8	3.6
과실	161.4	203.0	205.8	138.4	120.6	118.6	115.5	-43.9	-2.6
축산물	100.2	98.9	95.3	87.7	86.5	92.3	96.6	1.3	4.6
육가공품	91.0	89.7	90.1	85.8	84.8	85.3	86.7	-3.8	1.7
과실채소가공품	113.4	114.3	115.0	123.3	123.9	123.4	122.9	6.9	-0.4
낙농	118.0	116.6	105.3	105.3	117.6	116.4	105.5	0.2	0.3
사료	115.2	114.7	115.3	115.5	117.1	117.6	117.8	2.2	0.2
비료및질소	103.8	103.8	103.8	103.8	105.0	105.0	105.0	1.1	0.0
살충제및농약	100.7	101.1	101.3	101.3	101.3	101.3	101.3	0.0	0.0
농업용 기계	110.7	111.0	111.5	114.4	114.6	114.6	115.6	3.7	0.8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3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4% 상승, 농축수산물은 전분기 대비 1.3% 상승함.
- 농산물의 경우, 곡물, 채소류를 제외한 과일, 기타농산물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0.8% 하락하였고, 축산물은 전분기대비 7.6% 상승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5.9	106.1	106.4	106.7	107.4	107.3	107.7	1.2	0.4
농축수산물	112.8	112.6	113.3	111.9	114.6	111.3	112.7	-0.5	1.3
농산물	118.2	117.8	118.4	119.0	124.5	117.1	116.2	-1.9	-0.8
곡물	118.7	118.5	118.2	122.9	126.1	127.1	127.6	8.0	0.4
채소	100.5	96.7	102.0	105.2	118.4	99.4	100.7	-1.3	1.3
과일	124.7	129.0	125.8	123.0	123.3	124.0	121.6	-3.3	-1.9
기타농산물	179.7	172.9	170.1	163.8	160.8	150.2	142.0	-16.5	-5.5
축산물	103.2	102.1	104.5	98.5	95.7	98.4	105.9	1.3	7.6
수산물	110.9	112.8	110.9	110.6	112.8	114.6	112.6	1.5	-1.7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3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고추(화건), 마늘(난지), 양파 등의 일부 채소류와 사과(후지), 배(신고) 등의 과일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쌀과 배추, 무, 느타리 등의 품목은 상승함.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5.6	125.8	125.5	129.9	131.9	132.6	133.0	5.9	0.3
콩(백태)	106.9	113.1	114.4	121.3	128.8	129.6	129.1	12.9	-0.3
배추	56.3	76.3	93.4	90.0	115.9	73.7	101.1	8.3	37.3
무	47.4	61.2	76.5	90.9	60.1	77.5	82.1	7.3	5.9
고추(화건)	220.0	200.2	193.8	162.2	141.9	128.7	115.3	-40.5	-10.4
마늘(난지)	86.1	98.8	90.7	90.4	88.8	81.7	59.8	-34.0	-26.8
양파	73.8	81.2	109.8	138.6	193.8	191.0	94.7	-13.7	-50.4
사과(후지)	132.6	146.0	181.6	113.1	121.2	118.7	114.8	-36.8	-3.3
배(신고)	125.8	134.6	165.6	186.4	199.2	190.1	150.9	-8.9	-20.6
느타리	103.8	106.2	128.5	98.7	104.4	101.3	122.2	-4.9	20.6
참깨	114.1	116.3	115.3	114.3	114.4	115.5	114.4	-0.8	-1.0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3/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0.3% 상승, 콩(백태)은 전분기보다 0.3% 하락함.
- 2013년 3/4분기 채소 가격은 배추와 무를 제외한 고추(화건), 마늘(난지), 양파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3년 3/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 배(신고)의 가격이 전분기보다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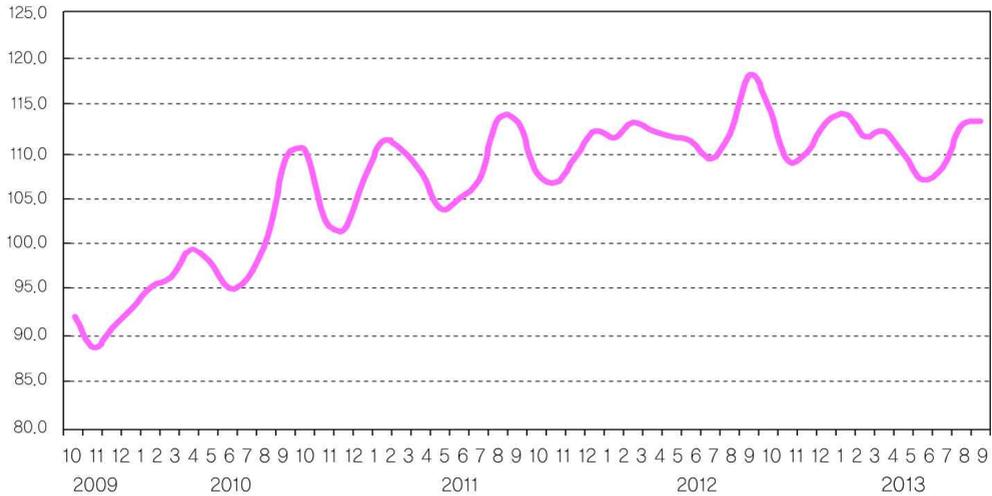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³⁾

- 2013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1.5로 전년 동기대비 1.5% 하락, 전분기대비 1.7% 상승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과, 양파, 마늘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음.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1.1	120.7	120.1	125.5	127.7	128.5	128.8	7.2	0.2
쇠고기(국산)	86.9	86.9	89.1	90.4	89.3	87.1	89.1	0.0	2.3
돼지고기	114.1	112.3	117.3	99.0	92.4	99.9	114.9	-2.0	15.0
닭고기	101.4	100.6	102.7	101.8	104.4	104.1	109.7	6.8	5.4
사과	123.8	132.3	137.1	138.7	136.9	139.3	139.6	1.8	0.2
배추	50.2	80.7	96.6	97.0	119.6	95.5	113.4	17.4	18.7
무	55.4	63.0	81.2	84.1	66.0	71.8	80.3	-1.1	11.8
오이	142.4	93.4	94.3	97.2	152.2	87.4	96.6	2.4	10.5
토마토	123.5	104.2	82.2	117.5	113.8	90.2	93.8	14.1	4.0
파	65.6	73.3	102.2	107.4	107.2	88.5	70.8	-30.7	-20.0
양파	87.2	95.6	104.9	118.2	162.1	195.2	113.9	8.6	-41.6
마늘	107.8	113.9	111.0	108.6	109.9	111.8	96.6	-13.0	-13.6

자료: 통계청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3년 3/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로 전년 동기대비 1.8%, 전분기대비 0.9% 하락함.
- 신선채소는 양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9% 상승함.
- 신선과실은 사과, 오렌지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배, 바나나 등의 하락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9% 하락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2				2013			등락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2.0	112.5	112.7	112.8	118.5	111.7	110.7	-1.8	-0.9
신선어개	110.8	112.8	109.8	108.7	110.8	112.7	109.8	0.0	-2.6
신선채소	100.0	95.3	101.1	105.0	119.3	98.2	101.0	-0.1	2.9
배추	50.2	80.7	96.6	97.0	119.6	95.5	113.4	17.4	18.7
무	55.4	63.0	81.2	84.1	66.0	71.8	80.3	-1.1	11.8
버섯	107.2	105.8	107.9	106.8	105.8	102.9	110.6	2.5	7.5
오이	142.4	93.4	94.3	97.2	152.2	87.4	96.6	2.4	10.5
풋고추	145.1	99.5	83.2	104.9	143.8	88.8	91.1	9.5	2.6
호박	118.5	67.7	88.0	101.5	118.6	71.4	84.9	-3.5	18.9
파	65.6	73.3	82.2	107.4	107.2	88.5	93.8	14.1	4.0
양파	87.2	95.6	104.9	118.2	162.1	195.2	113.9	8.6	-41.6
신선과실	124.7	129.0	125.8	123.0	123.3	124.0	121.6	-3.3	-1.9
사과	123.8	132.3	137.1	138.7	136.9	139.3	139.6	1.8	0.2
배	126.0	127.2	130.2	154.4	169.1	172.6	168.5	29.4	-2.4
오렌지	103.7	88.4	87.9	87.9	87.7	79.6	80.5	-8.4	1.1
바나나	98.3	108.1	97.9	89.4	111.2	143.2	122.8	25.4	-14.2
기타신선	105.8	111.9	110.7	108.2	109.6	112.0	98.2	-11.3	-12.3

자료: 통계청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3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724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2.3%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960천 명이었고, 여성은 1.3% 증가한 764천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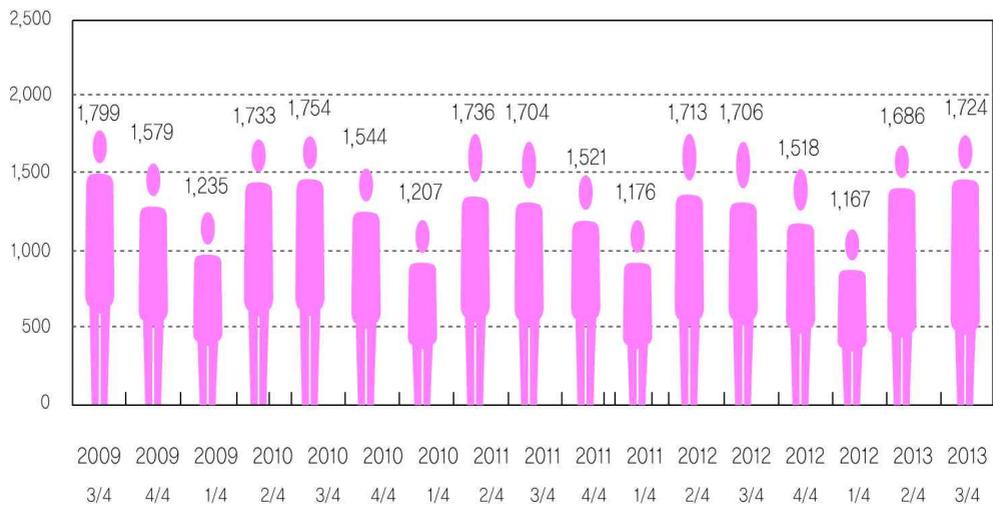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2				2013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체	23,927	25,003	24,989	24,804	24,184	25,326	25,410	1.7	0.3
	농림어업	1,176	1,713	1,706	1,518	1,167	1,686	1,724	1.1	2.3
	남성	713	945	957	863	733	932	960	0.3	3.0
	여성	463	768	748	655	434	754	764	2.1	1.3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3년 3/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1.6% 감소한 반면 1~17시간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17천 명으로 전분기대비 21.4%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40시간으로 전분기대비 2.9% 감소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2				2013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전체	1,176	1,713	1,706	1,518	1,167	1,686	1,724	1.1	2.3
1~17시간	269	103	118	157	276	99	109	-7.6	10.1
18~35시간	361	369	407	356	362	348	393	-3.4	12.9
36시간 이상	511	1,228	1,161	982	508	1,224	1,205	3.8	-1.6
일시 휴직	36	13	20	24	21	14	17	-15.0	21.4
주당 평균시간	30.0	41.7	39.2	37.8	29.4	41.2	40.0	2.0	-2.9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3년 1~9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중국, 미국, 아세안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엔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본과 EU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5,706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팥이와 새송이 등의 버섯류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김치, 양배추, 당근, 양파 등의 채소류와 국화, 장미 등 화훼류 또한 배 등 과실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출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멸치, 가자미 등의 어류와 새우 등 갑각류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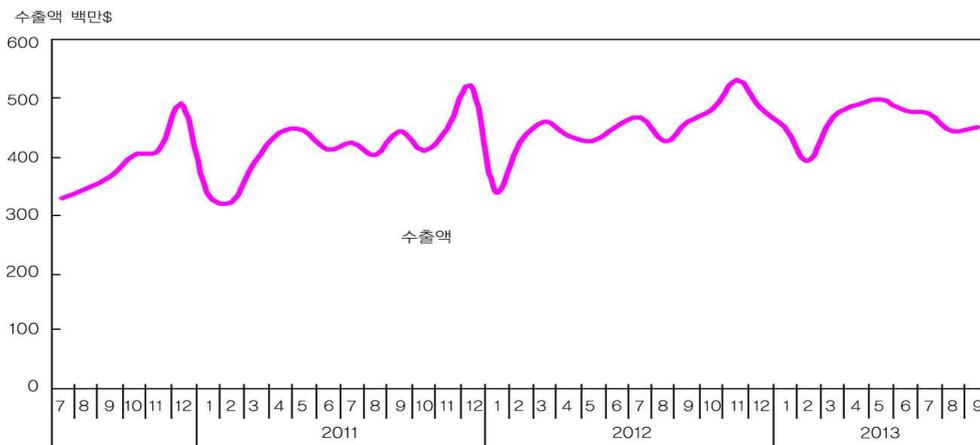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321	4,146	2,467	4,151	6.3	0.1
· 농 산 물	1,741	3,519	1,879	3,396	8.0	-3.5
· 축 산 물	67	286	96	322	43.6	12.7
· 임 산 물	513	341	492	433	-4.2	26.8
수 산 물	524	1,744	508	1,555	-3.0	-10.8
전 체	2,845	5,889	2,976	5,706	4.6	-3.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5% 감소, 전월 대비 1.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2. 수입 동향

- 2013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25,30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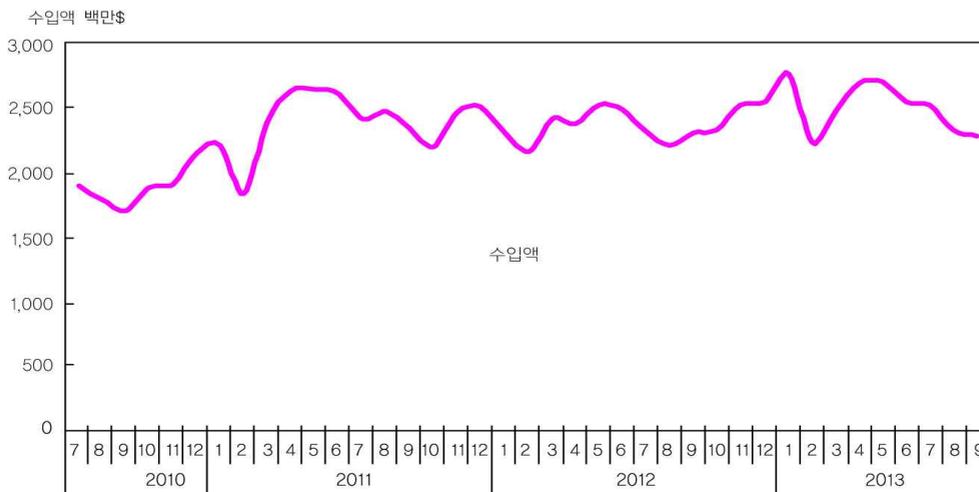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4,423	22,057	34,504	22,547	0.2	2.2
· 농 산 물	23,305	13,933	23,127	14,279	-0.8	2.5
· 축 산 물	973	3,588	905	3,468	-7.0	-3.3
· 임 산 물	10,145	4,536	10,472	4,800	3.2	5.8
수 산 물	3,408	2,888	3,754	2,760	10.1	-4.4
전 체	37,831	24,945	38,257	25,307	1.1	1.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0.8% 감소, 전월 대비 1.9%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중국 서부시장으로의 활발한 관측활동을 통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분유, 유아차,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되어 2013년 1~9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94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00,521	643,616	562,489	695,525	12.4	8.1
· 농 산 물	248,705	470,676	279,132	491,823	12.2	4.5
· 축 산 물	16,436	94,265	23,460	110,248	42.7	17.0
· 임 산 물	235,379	78,674	259,897	93,454	10.4	18.8
수 산 물	90,353	274,417	102,254	253,404	13.2	-7.7
합 계	590,874	918,033	664,743	948,929	12.5	3.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곡류와 버섯류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과일류는 20.2%, 채소류는 11.1%, 화훼류는 53.8%, 낙농품은 71.8%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 류	1,557	1,805	1,307	1,433	-16.1	-20.6
과실류	18,835	29,164	21,874	35,048	16.1	20.2
채소류	899	8,463	1,206	9,403	34.2	11.1
화훼류	620	3,992	979	6,138	57.9	53.8
버섯류	343	502	103	185	-69.9	-63.2
낙농품	4,425	31,244	8,246	53,677	86.4	71.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9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416,061	3,069,627	5,041,030	3,462,225	14.2	12.8
· 농 산 물	2,146,991	1,691,064	2,826,143	2,022,674	31.6	19.6
· 축 산 물	18,391	101,415	18,264	104,808	-0.7	3.4
· 임 산 물	2,250,679	1,277,149	2,196,623	1,334,743	-2.4	4.5
수 산 물	512,594	775,113	635,871	718,491	24.0	-7.3
합 계	4,928,655	3,844,740	5,676,900	4,180,717	15.2	8.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9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9억 2,8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함. 이는 엔저 현상으로 유자차, 김치, 밤 등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과실류는 사과, 포도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3.5% 감소함.
 - 채소류는 배추, 김치, 멜론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함.
 - 화훼류는 장미, 튜립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6.3%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94,687	1,038,105	653,749	928,526	9.9	-10.6
· 곡 류	108,702	719,950	108,414	590,340	-0.3	-18.0
· 과실류	8,313	22,648	7,227	17,331	-13.1	-23.5
· 채소류	41,615	162,521	37,402	139,012	-10.1	-14.5
· 화훼류	4,676	48,760	4,106	31,069	-12.2	-36.3
· 버섯류	555	1,663	399	1,355	-28.2	-18.5
· 낙농품	2,640	11,104	2,150	9,516	-18.6	-14.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9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61,687	374,002	389,119	344,307	48.7	-7.9
· 농 산 물	59,780	277,969	53,431	223,269	-10.6	-19.7
· 축 산 물	16,420	32,880	28,657	39,285	74.5	19.5
· 임 산 물	185,486	63,153	307,031	81,753	65.5	29.4
수 산 물	30,195	89,128	45,806	89,707	51.7	0.6
합 계	291,881	463,130	434,925	434,014	49.0	-6.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9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3억 7,1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함. 이는 곡류와 과실류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채소류, 화훼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는 호박, 딸기, 토마토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1.8% 증가함.
 - 과실류는 배, 유자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함.
 - 버섯류는 양송이,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9,863	339,633	150,464	371,613	7.6	9.4
· 곡 류	4,369	4,646	4,109	4,234	-6.0	-8.9
· 과실류	7,369	15,904	8,206	14,723	11.4	-7.4
· 채소류	3,046	14,790	3,536	20,975	16.1	41.8
· 화훼류	124	1,278	117	1,453	-5.3	13.6
· 버섯류	2,307	4,367	2,334	4,512	1.1	3.3
· 낙농품	3,519	3,831	3,869	4,054	10.0	5.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9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004,198	5,144,185	4,782,071	4,538,917	-40.3	-11.8
· 농 산 물	6,501,347	3,435,471	3,307,129	2,814,419	-49.1	-18.1
· 축 산 물	322,213	1,107,766	298,268	1,088,972	-7.4	-1.7
· 임 산 물	1,180,639	600,947	1,176,674	635,527	-0.3	5.8
수 산 물	40,428	133,088	45,937	162,413	13.6	22.0
합 계	8,044,626	5,277,273	4,828,009	4,701,330	-40.0	-10.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3년 1~9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럽경제 위축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21,780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6.1% 감소함.

【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1,115	232,849	117,992	217,805	29.5	-6.5
· 농 산 물	87,497	212,850	114,282	201,793	30.6	-5.2
· 축 산 물	387	9,769	374	9,474	-3.2	-3.0
· 임 산 물	3,232	10,230	3,336	6,537	3.2	-36.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3년 1~9월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축산물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한 23억 952만 달러임.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2. 1~9		2013. 1~9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55,756	2,177,477	1,736,009	2,306,189	19.3	5.9
· 농 산 물	803,353	1,136,773	1,138,170	1,304,087	41.7	14.7
· 축 산 물	197,163	785,099	160,378	697,499	-18.7	-11.2
· 임 산 물	455,240	255,605	437,461	304,604	-3.9	19.2
수 산 물	14,375	84,265	17,788	89,059	23.7	5.7
합 계	1,470,131	2,261,742	1,753,797	2,395,249	19.3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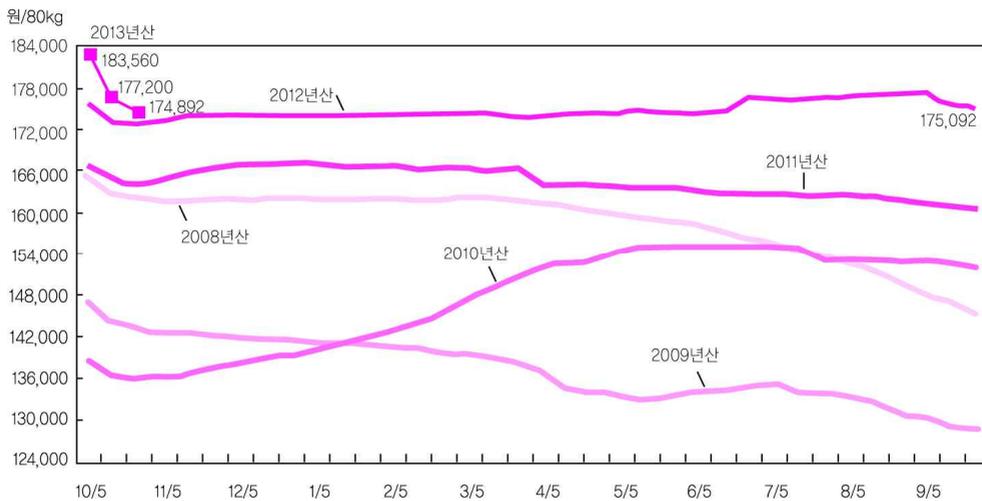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⁴⁾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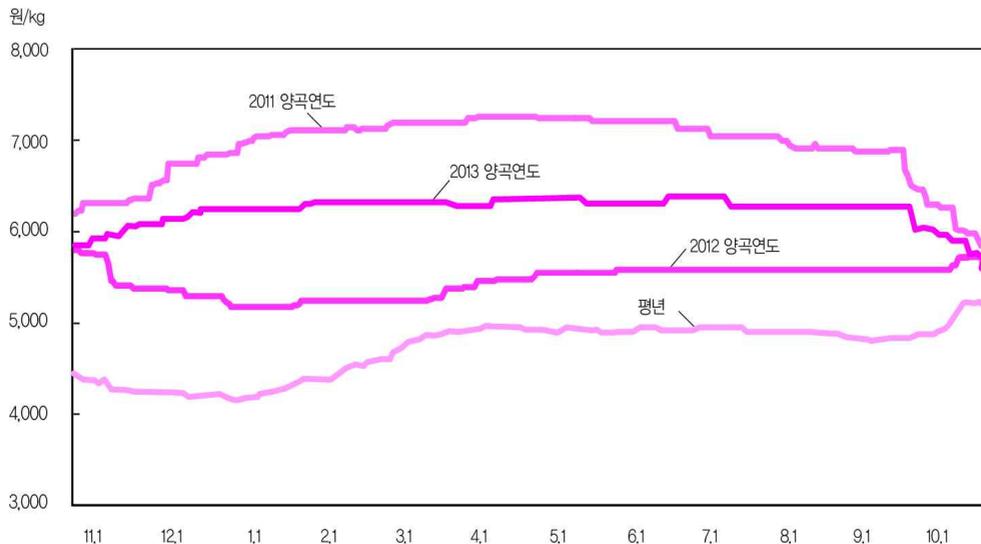
- 2012년산 쌀 생산량 감소로 단경기 들어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됨. 2013년 9월말 기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8천 톤 감소함.
- 2012년산(구곡) 산지 쌀값은 2013양곡연도 단경기 들어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 감소폭이 커지면서 강보합세를 보였음. 그러나 기상여건 호조로 2013년산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곡 가격은 9월 평균 80kg당 17만 5,827원으로 전월 대비 1,076원(0.6%) 하락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석호 연구위원(shohan@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대석(sorihunt@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주(djlee@krei.re.kr), 김태이(fishmail@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3년산(신곡) 산지 쌀 가격은 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10월 25일 기준 80kg 당 17만 4,892원으로 전년 대비 1.1% 높지만, 10월 15일 보다 1.3% 낮은 수준으로 전기 대비 하락세 지속
 - 10월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벼 재배면적이 83만 3천 ha로 전년 대비 대비 1.9% 줄어들었으나, 예상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23만 4천 톤) 증가한 424만 톤 예상
 -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 2013년산 수확기 평균 벼 매입 예상가격은 40kg 기준 55,841원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
 - 수확기 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공급 가능물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6.2%(22만 7천 톤) 증가한 387만 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 쌀값은 12월 까지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4분기 동향
 - 콩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국산 콩 수요가 수입 콩으로 전환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단경기 콩 도매가격은 6월 이후 약보합세 유지
 - 9월 들어 2013년산 국산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산 콩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됨.
 - 국산 콩 도매가격은 10월 23일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6.0%. 평년 대비 18.8% 상승한 5,988원/kg으로 전월 대비는 4.7% 하락하였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3년산 콩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단수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0~26% 증가한 14만 8천 톤~15만 5천 톤 전망
 - 산지유통업체 및 농협이 2012년산 재고물량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산 콩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1.3. 국제곡물

- 2013/14년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옥수수, 콩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음. 10월 옥수수, 콩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5.4%, 6.2% 하락하였으나 밀 선물가격은 6.3% 상승하였음.

- 2013년 10월 평균 밀 선물가격(톤당 253달러)은 미국 재고량 감소 및 러시아 생산량 감소전망으로 전월 대비 6.3% 상승함. 옥수수 선물가격(톤당 174달러)은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대비 41.1% 하락하였음. 이는 2013/14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월 중순 미국 중서부지역 가뭄피해를 받았음에도 콩 수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월 대비 6.3% 하락함.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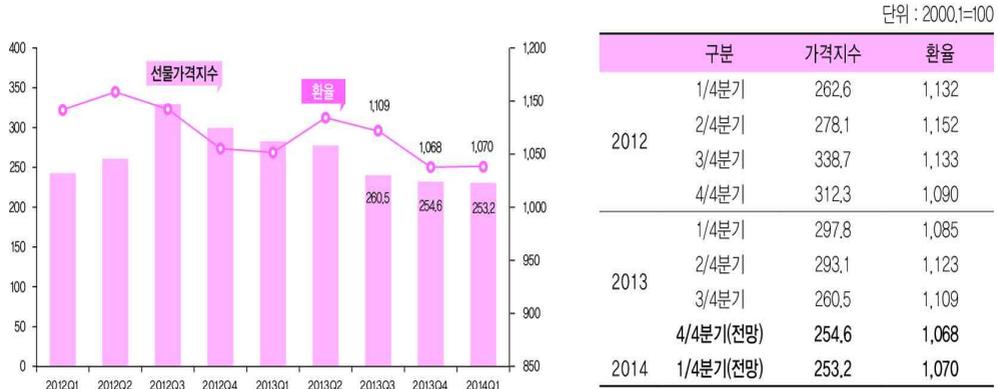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월 대비	전년 동월대비
				9월	10월		
밀	294	261	276	238	253	6.3	-20.5
옥수수	208	267	282	184	174	-5.4	-41.1
콩	453	484	534	504	473	-6.2	-16.4

주: 10월 가격은 1일~31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

- 2013/14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7억 444만 톤으로 전망됨. 미국의 밀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로 전년 대비 6.2% 감소 예상됨. 호주, 우크라이나의 경우 기상여건이 개선되어 단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각각 전년 대비 24.2%, 48.1% 증가할 전망이다.
-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북반구 국가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2013/14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9억 6,711만 톤으로 전망됨.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생육기간 충분한 비와 수확기 건조한 기상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작년과 비교하여 생산량 증가분이 소비량 증가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14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5.9%p 상승한 22.3%로 전망됨.
- 2013/14년 세계 콩 생산량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553만 톤 증가한 2억 8,276만 톤으로 전망됨. 미국의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USDA NASS에 따르면 미국의 콩 수확률은 10월 20일 기준 63%임. 남미지역의 기말재고량 증가로 2013/14년 세계 콩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3.9%p 상승한 32.4%가 될 전망이다.
- 2014년 1/4분기까지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24억 3,010만 톤으로 전월(9월) 전망치보다 0.3%p 상승하여 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2.3% 하락한 254.6, 내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한 253.2로 전망됨.

【 분기별 선물가격지수 동향 및 전망 】



- 주 1. 선물가격지수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분기별 국제곡물 가격전망모형」에서 산출되었음.
 2. 선물가격지수는 주요곡물인 밀, 옥수수, 콩, 쌀이 포함되며, IGC 곡물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3.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대체재 가격, 생산량, 국제유가, 환율, 기말재고율 등을 반영함.
 자료: CBOT, 한국은행, IGC.

【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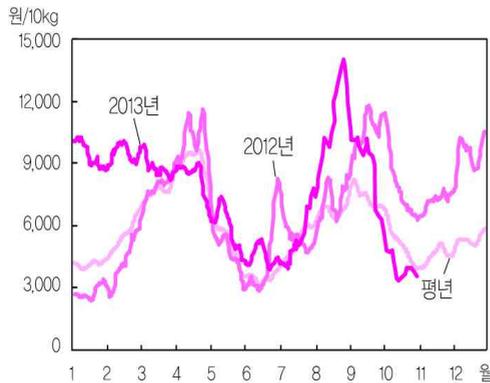
구분		평년(3개년)	2012/13 (추정)	2013/14 (전망)	전년 대비 (%)
밀	생산량	664.79	947.93	699.82	8.0
	소비량	678.41	677.67	692.48	2.2
	교역량	141.61	137.15	147.06	7.2
	기말재고량	205.68	187.61	194.17	3.5
	기말재고율(%)	30.3	27.7	28.0	0.3p
옥수수	생산량	851.28	853.25	957.57	12.2
	소비량	853.84	852.53	901.44	5.7
	교역량	98.21	91.17	101.82	11.7
	기말재고량	131.67	139.26	193.48	38.9
	기말재고율(%)	15.4	16.3	21.5	5.2p
콩	생산량	256.56	267.17	280.53	5.0
	소비량	253.37	255.33	267.47	4.8
	교역량	92.82	98.21	101.58	3.4
	기말재고량	70.09	72.86	86.10	18.2
	기말재고율(%)	27.7	28.5	32.2	3.7p

자료: 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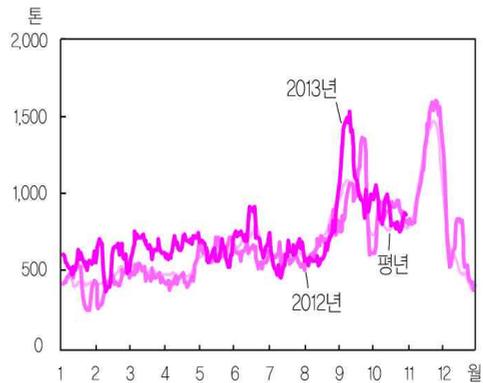
2. 엽근채소⁵⁾

2.1. 배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3/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도 나빠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9%, 31% 높았음.
- 7월 중순~9월 중순 도매가격은 긴 장마 이후 고온 및 가뭄에 따른 작황 악화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9월 하순 이후 가격은 기상이 호전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하락하였음.
- * (2013) 8,310원/10kg, (2012) 7,596원, (평년) 6,331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적었던 작년보다 많고 평년보다도 많을 것으로 전망
-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14,827ha, 단수는 작년보다 8% 증가한 10,479kg/10a으로 추정되어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적었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서대석 부연구위원(dssuh@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이금호(leekumho@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권희민(romeo@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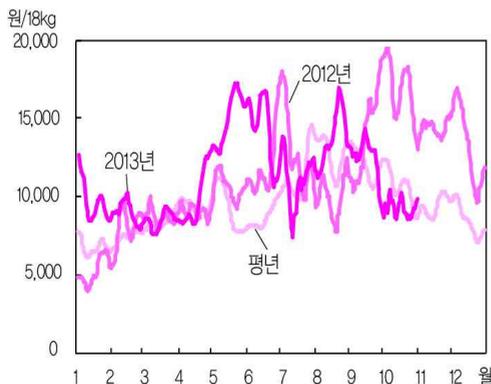
- 던 작년보다 20%, 평년보다 6% 증가 전망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10월 이후 가을배추의 본격적인 출하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크게 낮고 평년보다도 낮을 전망

● 2013년 겨울배추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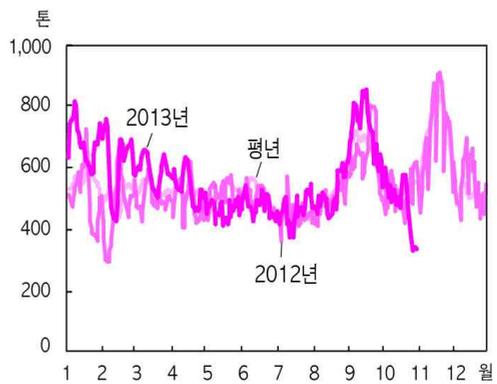
- 금년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금년 초 출하기 가격이 평년이나 작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11%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9% 증가한 5,350ha로 추정
 - * 평년 단수를 적용한 겨울배추 추정 생산량은 34만 1천 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많을 전망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3/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작황이 나빠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 5% 높았음.
- 7월 하순~9월 중순 도매가격은 긴 장마 이후 고온 및 가뭄에 따른 작황 악화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9월 하순 이후

가격은 기상이 호전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하락하였음.

* (2013) 12,650원/18kg, (2012) 12,323원, (평년) 11,980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가을무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적었던 작년보다 많고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한 7,319ha, 단수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8,065kg/10a으로 추정되어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적었던 작년보다 18%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2% 감소 전망

- 4/4분기 무 도매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11월 이후 가을무의 본격적인 출하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크게 낮고 평년보다도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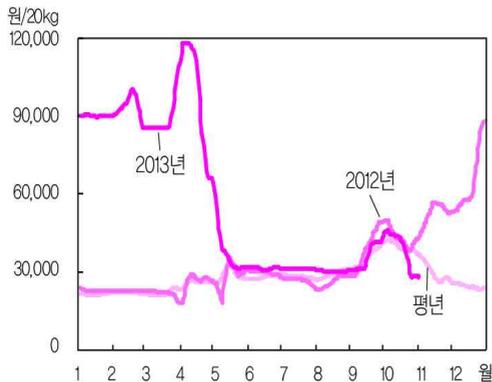
● 2013년 월동무 생산 전망

- 금년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하고, 평년보다는 20% 증가한 4,642ha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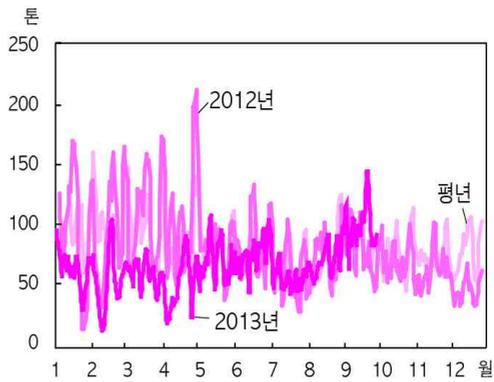
* 평년 단수를 적용한 월동무 추정 생산량은 28만 5천 톤으로 작년보다 3% 적으나 평년보다는 20% 많을 전망

2.3. 당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국내산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3/4분기 도매가격은 봄당근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장당근의 감모율이 높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12% 높은 수준임. 7월 상순 이후 가격은 지속적인 약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9월 중순 이후 고랭지당근이 출하되면서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상승함.

* 3분기: (2013년) 31,985원/20kg, (2012년) 30,520원, (평년) 28,462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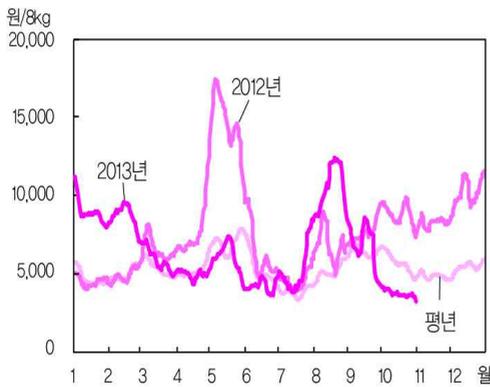
- 가을당근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31% 증가할 전망
 - *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3% 증가한 238ha, 단수는 작년보다 8% 감소한 3,053kg/10a으로 추정
- 4/4분기 당근 도매가격 평년수준 전망
 - * 4/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가을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높았던 작년보다 낮은 평년수준 전망

● 2013년 겨울당근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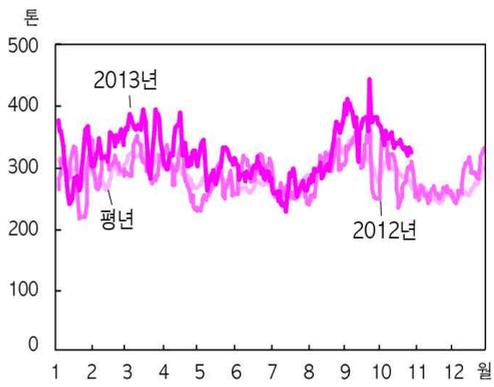
- 금년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9%, 11% 증가한 1,652ha로 추정
- * 추정 단수를 적용한 겨울당근 추정 생산량은 4만 6천여 톤으로 작년보다 124% 많으나 평년보다는 30% 적을 전망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3/4분기 도매가격은 준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감소와 여름철 불안정한 기상여건으로 상품성이 우수한 양배추 출하가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43% 높은 수준임. 8월 중순 이후 출하지역이 고랭지로 확대되고 종자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품성이 호전되어 가격은 하락함.

* 3분기: (2013년) 7,372원/8kg, (2012년) 6,279원, (평년) 5,151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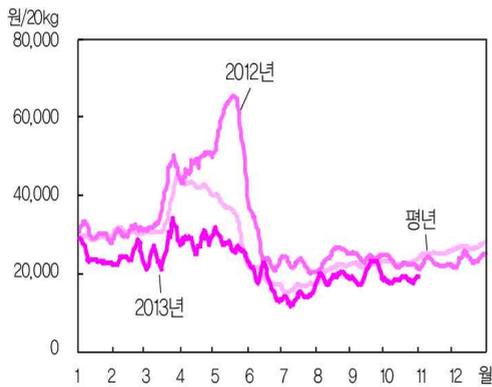
- 가을,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각각 16%, 7% 증가
- *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좋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도 태풍피해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던 충청지역 재배면적의 증가폭이 커진 것

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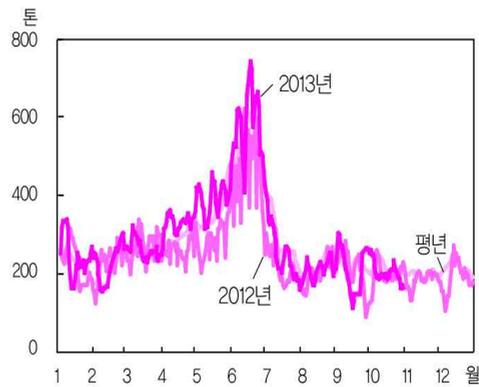
- 4/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4/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가을,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이 크게 높았던 작년보다 낮고 평년보다도 다소 낮을 전망

2.5. 감 자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감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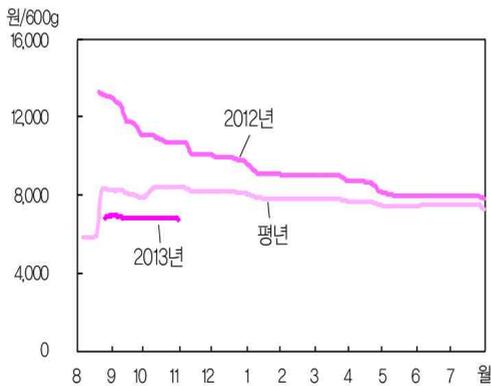
- 3/4분기 동향
 - 3/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저장봄감자의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1%, 19% 낮았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육지부 및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육지부 가을감자 생산량은 올해 감자가격 약세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2%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0% 감소한 1만 톤으로 추정됨.
 - *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은 올해 초 대지가격이 낮아 타 작물로 작목을 전환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7% 감소한 2만 7천 톤으로 전망

- 4/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로 작년이나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
- * 다만, 생육기에 한파 및 서리의 영향을 받을 경우 출하량과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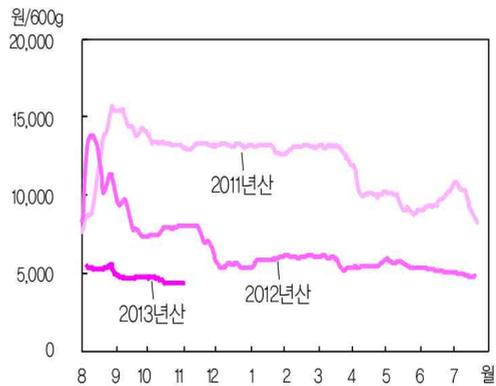
3. 양념채소6)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 주 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 2. 평년 도매가격은 2007년 8월~2012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 3/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2% 낮은 7,31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47% 낮은 5,510원 수준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7,310원/600g → (전년) 12,640 → (평년) 7,770
- * 산지가격: (금년) 5,510원/600g → (전년) 10,450
- 2013년산 고추 정식기(4~5월) 이후 기상이 좋아 초기 수확량이 많았으며, 이월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이성민(lsm199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재고량도 많았음.

- 2013년산 재배면적은 2012년산보다 0.2% 감소한 4만 5,360ha로 확정 발표됨 (통계청, 8.27).

【 2013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2.6	2.3	-12.7	-2.3	4.7	9.2	-11.1	8.0	-0.2

자료: 통계청.

- 9월 17일 지역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산 건고추 10a당 전체 수확량은 전년보다 7% 많은 245kg으로 조사됨.
 - * 정식기(4~5월) 이후 기상이 양호하여 초기 수확량이 많았으며, 8월 고온·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해졌으나, 8월 하순에 비가 내리면서 생육이 회복됨.
- 재배면적(45,360ha)에 추정단수(245kg/10a)를 적용할 경우,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7% 많은 11만 1,1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

연산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2013	45,360	245	111.1
2012	45,459	229	104.1
평년	44,953	232	104.3
증감률 (%)	전년	-0.2	6.7
	평년	0.9	6.6

주: 2013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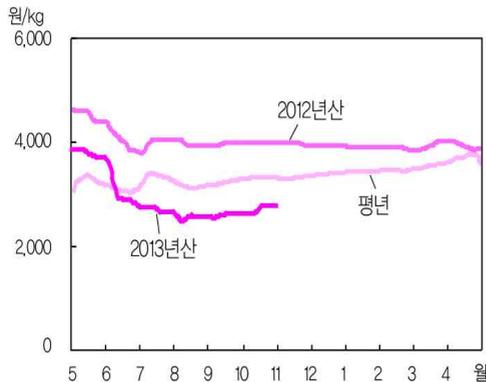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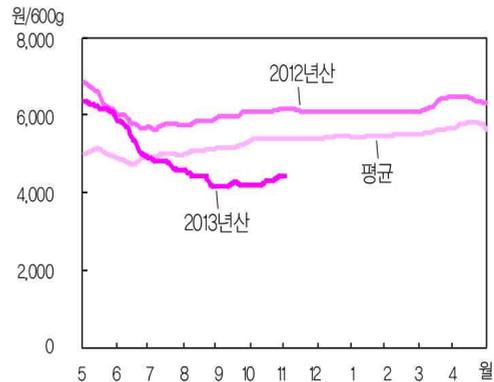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0월 평균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41%, 전월보다 5% 낮은 4,990원임. 화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7% 낮고, 전월과는 비슷한 6,890원임.
- 이월 재고량이 많고, 2013년산 고추 생육상황이 좋아 수확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4분기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2. 마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깎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7년 5월~2012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4분기 동향

-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3/4분기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34%, 19% 낮은 kg당 2,623원. 깎마늘 도매가격은 kg당 4,330원으로 전년보다 25%, 평년보다 13% 낮음.

* 난지형: (금년) 2,623원/kg, (전년) 3,977원/kg, (평년) 3,243원/kg

- 금년 마늘 산지출하량이 늘고, 3/4분기 마늘 수입량은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

* 마늘 수입량: (금년) 12,638톤, (전년) 11,504톤, (평년) 14,709톤

* 냉동마늘 수입량: (금년) 8,206톤, (전년) 5,025톤, (평년) 8,064톤

● 2013년산 마늘 저장동향

- 2013년산 마늘 저장량은 평년보다 2~3만 톤 가량 많고, 이중 정부 구매·비축량은 12,205톤임.
- 2013년 마늘 10월까지 출고량은 깎마늘용 위주로 전년보다 6% 많고, 재고량은 26% 많음.

【 2013년산 마늘 저장량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출고량	재고량	조정재고량 (감모율 적용)
6.1	26.2	26.9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kg당 2,722원으로 전년, 평년보다 32%, 18% 낮음. 간마늘도 4,211원으로 전년, 평년 대비 각각 30%, 20% 낮음.
- 국내산 마늘 산지 출하가 감소하고, 저온저장량이 본격 출하됨에 따라 10월 가격은 전월 대비 5% 상승
- 금년 마늘 저장량 증가 영향으로 4/4분기 마늘 공급량은 전년, 평년보다 많고,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3,968원), 평년(3,341원) 대비 약세 전망
- 마늘 공급량 많으나 김장철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은 보합권 전망

● 2014년산 재배의향

- 마늘 가격 약세로 내년산 재배의향면적 금년보다 11% 감소한 25,992ha 전망. 일부 지역 정식 지연, 고온·습해 등으로 파종된 마늘 초기 작황 좋지 않음.

【 201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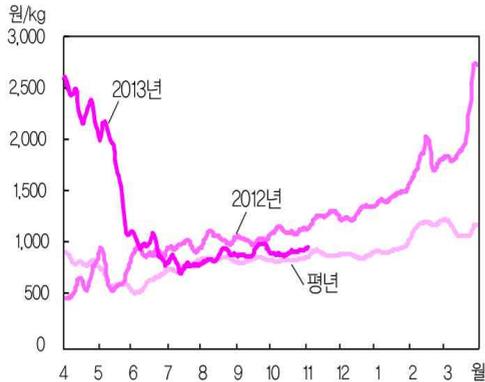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형	-13.2	-	-11.3	-	-11.9
난지형	0.7	-14.2	-10.0	-9.5	-11.3
전 체	-8.4	-14.2	-10.3	-9.5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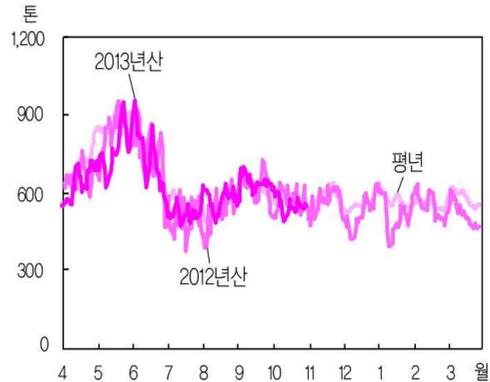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3.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7년 4월~2012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양파 3/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6% 낮은 880원임.
* (금년) 880원/kg → (전년) 1,040원 → (평년) 840원
- 2013년산 생산량 증가로 출하기 이후 가격 전년보다 낮은 수준 보합세 유지함.
* (7월) 810원/kg → (8월) 890원 → (9월) 930원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파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9% 낮고 평년보다 8% 높은 930원임.
- 2013년산 양파 저장업체 입고량은 중만생종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7% 많고 2011년보다 10% 적은 66만 톤 수준임.
- 10월 20일 현재 출고량을 제외한 재고량은 전년보다 24% 많은 약 52만 톤이며 부패율을 적용한 조정재고량은 48만 톤으로 전년보다 24% 많고 2011년보다 7% 적음.
* 재고량 (금년) 52만 톤 → (전년) 42 → (평년) 56

- 4/4분기 양파 가격은 전년(1,240원)보다 낮고 평년(1,000원)과 비슷한 수준 전망됨.

【 2013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 】

단위: 천 톤, %

연 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조정재고량	
2013	662	143	519	478	
2012	568	150	417	385	
2011	737	180	557	511	
증감률(%)	2012	16.6	-5.0	24.4	23.9
	2011	-10.2	-20.9	-6.7	-6.6

주: 부패율은 2013년 8.0%, 2012년 7.7%, 2011년 8.1%를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14년산 재배 전망

- 2014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2013년산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금년 양파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마늘, 배추 등에서 양파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치를 적용한 2014년산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 증가한 21,314ha로 추정됨.

【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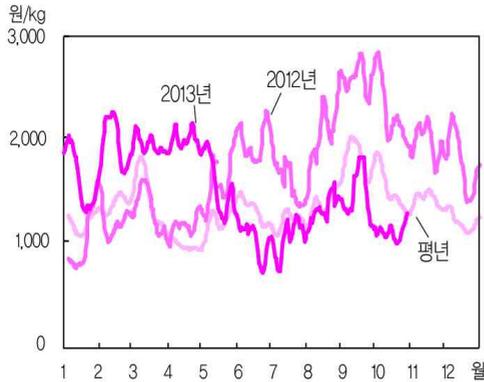
단위: ha, %

2014	2013	평년	증감률	
			금년 대비	평년 대비
21,314	20,036	21,038	6.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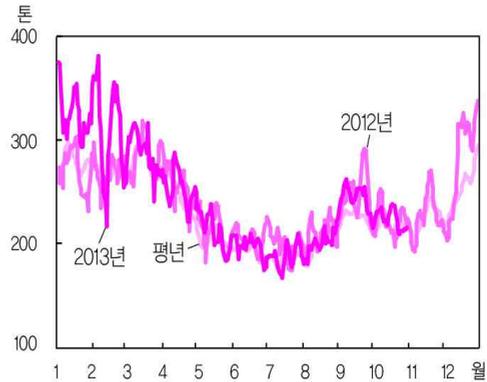
주: 201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8년~2012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280원(중품1,100원)으로 전년(2,120원)보다 39% 낮고 평년(1,490원)보다 14%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1,280원/kg → (전년) 2,120원 → (평년) 1,490원

- 전년 출하기 가격호조로 재배면적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였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동향은 전년도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출하량이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경기·강원 지역의 출하기 종료되고 가격약세의 영향으로 후속산지의 출하가 올 가을에서 내년 봄으로 미뤄질 경우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공급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전체 출하량은 전년 동기 가격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황도 좋아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대파 2013년 4/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2,010원/kg)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0~12월의 대파 재배의향은 전년 동기 작황부진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3.5.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4/4분기 특징

- 건고추는 비가림 재배 후기작 등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10월 중으로 수확이 완료됨. 3/4분기에 입고가 완료된 마늘·양파와 함께 건고추의 수확이 완료되어 저장량과 출고 동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임.
- 대파는 경기도와 강원 고랭지의 출하 비중이 줄고, 호남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하는 시기임.
-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건고추·마늘·양파·대파 등 양념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배추·무 등 타 김장 재료의 수요와 시세와 연계되어 양념채소의 가격이 형성됨.

● 4/4분기 기상전망

- 9월 23일자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0월 기온은 상순 평년(14~19℃)과 비슷하고, 중순 평년(12~18℃)보다 높으며, 하순 평년(9~16℃)보다 높은 것으로 예보됨. 강수량은 상순 평년(12~28mm)과 비슷하고 중순도 평년(7~49mm)과 비슷함. 하순 강수량은 평년(10~33mm)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됨.
- 11월 기온은 평년(4~12℃)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31~80mm)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됨.
- 12월 기온은 평년(-3~6℃)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15~42mm)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됨.

● 4/4분기 양념채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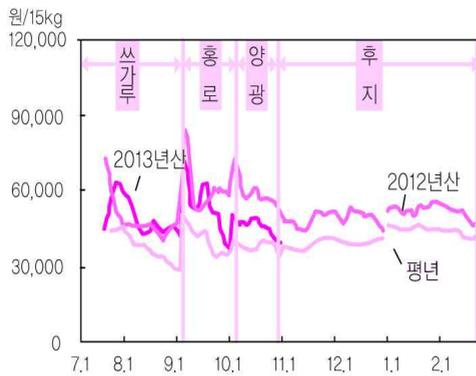
- 건고추는 2012년산 재고가 많고, 2013년산은 전년과 평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이 증가함.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전기 수확분의 출하가 종료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후기 수확 건고추가 출하되고 농가 보유 물량도 많

- 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마늘 입고량은 평년보다 약 20% 많아 전년 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4년산 재배의향이 약 12% 감소하는 등 내년 공급이 평년 대비 부족이 전망되어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양파의 입고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고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파는 전년 4/4분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으로 11~12월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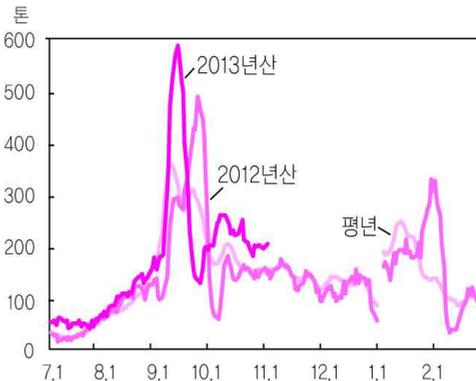
4. 과일⁷⁾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 3/4분기 사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많아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 상자에 5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3% 낮았음.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홍로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4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32% 높았고, 15kg 상자는 작년과 비슷한 5만 7천원이었음. 과 비대 저조로 대과 물량이 적어 추석 수요가 많은 선물용 5kg 상자 가격이 높았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66% 많아 상품 15kg 상자에 4만 6천원으로 21% 낮았음.
- 11~12월 후지 가격은 작년보다 20% 낮지만,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출하량이 작년보다 4% 많고, 배 등의 대체과일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42만톤 수준으로 작년보다 7% 많지만, 평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성목면적이 작년과 비슷하지만, 단수가 작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표본농가 조사결과, 올해 사과 저장량(12~6월)은 후지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9% 가량 많고, 수확후 장기저장을 위한 1-MCP(에틸렌 생성 억제제) 처리 비율도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사과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A)	21,602	1,948	420.7
2012년(B)	21,629	1,824	394.5
평년	19,519	2,264	441.8
증감률(A/B)	-0.1	6.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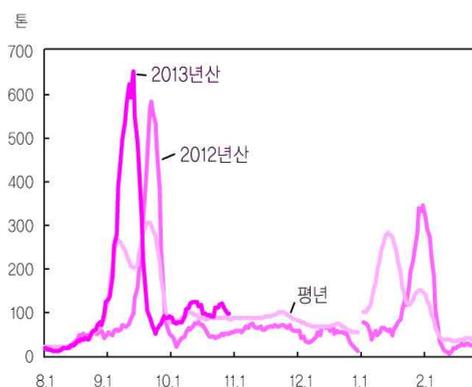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3년 단수, 생산량)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8월 햇배 원황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 상자에 4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11% 높았음. 반입량은 작년보다 4% 많았으나, 대과 비중이 낮아 상품 가격이 높았음.
-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은 4만 6천원(7.5kg 3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11% 낮았음. 이는 태풍으로 추석 출하용 배의 낙과가 심했던 작년보다 반입량이 30% 가량 많았기 때문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120% 많아 상품 15kg 상자에 2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43% 낮고, 평년과 비슷하였음.
- 11~12월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5만톤 수준으로 태풍피해가 심했던 작년보다 46% 많지만, 평년보다는 26% 적을 것으로 전망됨. 작년과 달리 흑성병, 우박, 태풍피해 등이 없어 단수가 작년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표본농가 조사결과, 올해 배 저장량(11~7월)은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46% 가량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배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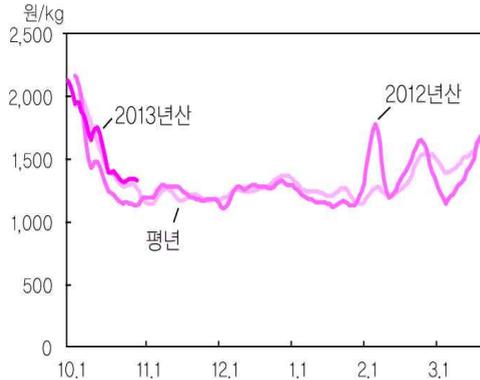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		12,727	1,973	251.1
2012년		13,346	1,293	172.6
평년		14,619	2,318	338.9
증감률	작년대비	-4.6	52.6	45.5
	평년대비	-12.9	-14.9	-25.9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단수, 생산량)

4.3. 감귤

【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 동향 】



【 노지온주 출하량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5,500원으로 작년보다 23% 높았음. 이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15% 적었기 때문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460원으로 전년보다 13% 높았다.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28% 적었기 때문임.
- 11~12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전년(kg당 1,22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6% 적고, 품질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한 51만 9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 줄었고, 착과량이 적어 단수도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A)	17,184	3,020	518.7
2012년(B)	17,386	3,215	558.9
평년	17,942	3,025	542.7
증감률(A/B)	-1.2	-6.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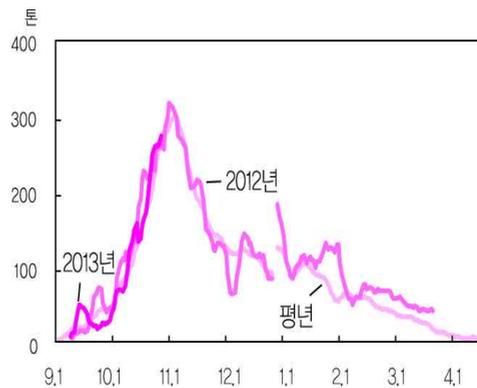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3년 단수, 생산량)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9월 서촌조생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 상자에 4만 2천원(중품 2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29% 높았음.
- 추석 성수기 서촌조생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5만 3천원(중품 2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64% 높았음. 이는 반입량이 작년보다 50% 적었기 때문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5% 높았

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10% 가량 적었기 때문임.

- 11~12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11월 이후 출하량이 작년보다 13%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15만톤 수준으로 작년보다 14%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줄었고, 단수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경남, 전남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1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단감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A)	11,589	1,289	149.4
2012년(B)	11,955	1,454	173.8
평년	13,026	1,407	183.2
증감률(A/B)	-3.1	-11.3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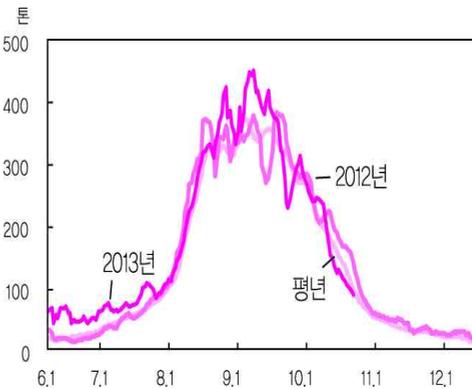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3년 단수, 생산량)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7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 상자에 3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16% 높았음. 반입량이 작년보다 25% 많았지만, 수박·복숭아 반입량이 적어 대체수요가 증가하였음.
- 8월 캠벨얼리 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7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9월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10% 많아 가격이 25% 낮았음.

● 생산량 추정

- 비가림·노지포도 생산량은 21만 8천톤으로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가 작년보다 6% 적고, 거봉과 MBA는 각각 10%,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비가림·노지포도 생산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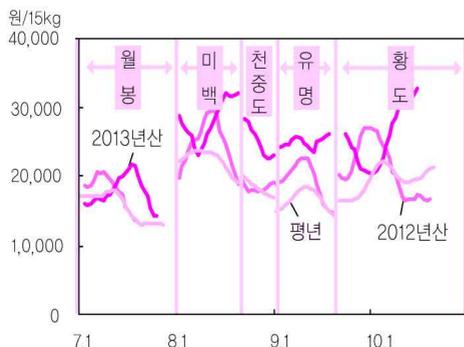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3년	11,836	1,839	217.6
2012년	12,397	1,877	232.7
증감률	-4.5	-2.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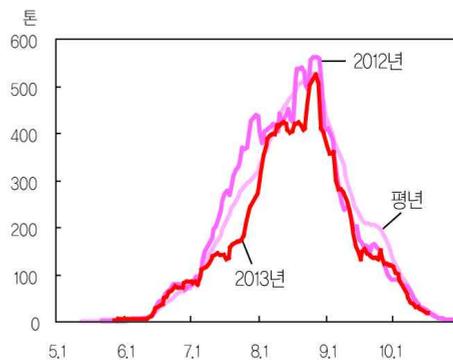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2~13년 단수, 생산량)

4.6. 복숭아

【 유모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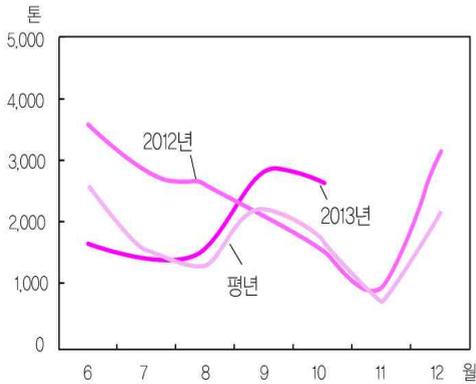
- 3/4분기 복숭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18% 적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7월 천도계 품종인 선프레와 천홍 가격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 상자에 작년보다 각각 55%, 74% 높았음. 8월 유모계 품종인 천중도백도, 황도 가격은 4.5kg 상자에 작년보다 각각 24%, 21% 높았고, 9월 유모계 품종인 엘버트, 황도 가격은 작년보다 21%, 39% 높았음.

● 생산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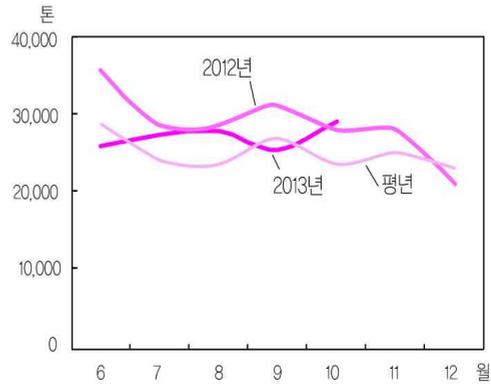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21% 적은 16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품종별로 조·중생종 생산량이 작년보다 21%, 만생종이 20%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겨울철 동해와 저온피해로 단수가 작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4.7. 수입과일 동향

【 오렌지 수입량 】



【 바나나 수입량 】



주: 평년은 2008~12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3/4분기 수입과일 동향

- 3/4분기 과일 수입량은 11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10% 적었음. 전체 수입단가는 1.18달러로 작년보다 5% 낮았음.

● 오렌지·포도

- 3/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5,855톤으로 작년보다 23% 적었음. 수입단가는 작년과 비슷하였고, 도매가격은 16% 높았음.
- 3/4분기 포도 수입량은 1,997톤으로 작년보다 6% 적었음. 수입단가는 작년과 비슷하였고, 도매가격은 38% 낮아 수입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바나나·파인애플

- 3/4분기 바나나 수입량은 필리핀의 태풍피해와 수입검역 강화로 작년보다 9% 적은 8만톤이었음. 수입단가는 작년보다 29% 높았고, 도매가격도 50% 높았음.
- 3/4분기 파인애플 수입량은 1만 6천톤으로 작년보다 5% 적었음. 수입단가는 작년보다 13% 높았고, 도매가격도 16% 높았음.

● 체리·망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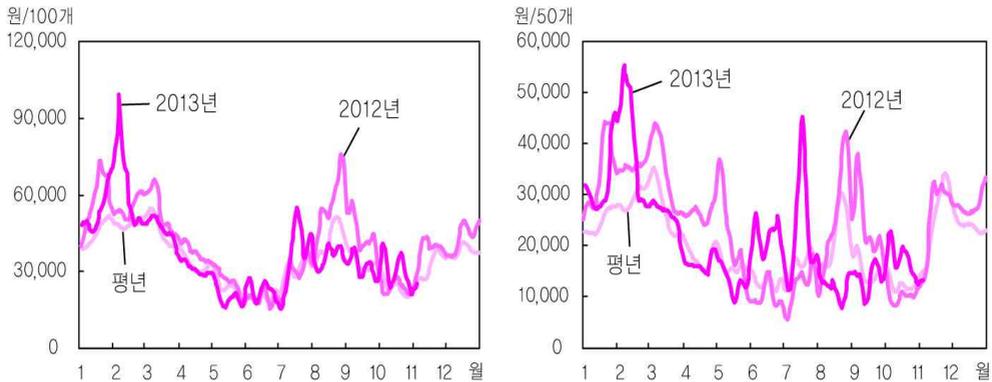
- 7~8월 체리 수입량은 2,855톤으로 작년보다 48% 적었음. 워싱턴 체리 생산량은 6월 잦은 강우로 인해 작년보다 25% 감소하였고(야키마 헤럴드, '13.6.26), 수확시기도 조기 종료되었음. 수입단가는 20% 높았고, 도매가격도 22% 높았음.
- 3/4분기 망고 수입량은 1,465톤으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음. 수입단가는 작년보다 14% 낮았고, 도매가격도 9% 낮았음.

5. 과채8)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사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3만 5,300원, 8월 3만 5,800원, 9월 3만 1,9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3만 4,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4% 낮았음.
- 3/4분기는 강원지역의 출하가 많으며 홍천에서 시설오이면적이 증가하였고, 진천, 천안지역의 시설지원 사업 및 품목전환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음. 또한, 생육상황이 좋아 7~9월 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17%, 평년 동기보다는 9% 많았음.
-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7월 2만 3천원, 8월 1만 2,100원, 9월 1만 3,4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만 6,1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2%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10%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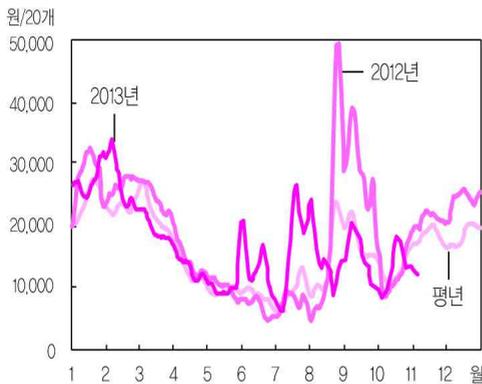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이장은(leeje@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3만 600원으로 충청지역 정식기 고온으로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29% 높았음.
- 백다다기오이 출하는 충청지역의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고 영남지역에서 출하가 일찍 시작되면서 순별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는 충남 천안의 가을억제작형 출하면적이 감소하였고, 호남지역의 재배면적도 감소하여 출하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1만 5,500원, 8월 1만 4,800원, 9월 1만 5,9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400원으로 작년보다 20% 낮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8% 높았음.
- 7월 중순부터 경기 북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8월 상순까지는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중순 이후 회복세를 보였음. 7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27% 적었으나 8~9월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6%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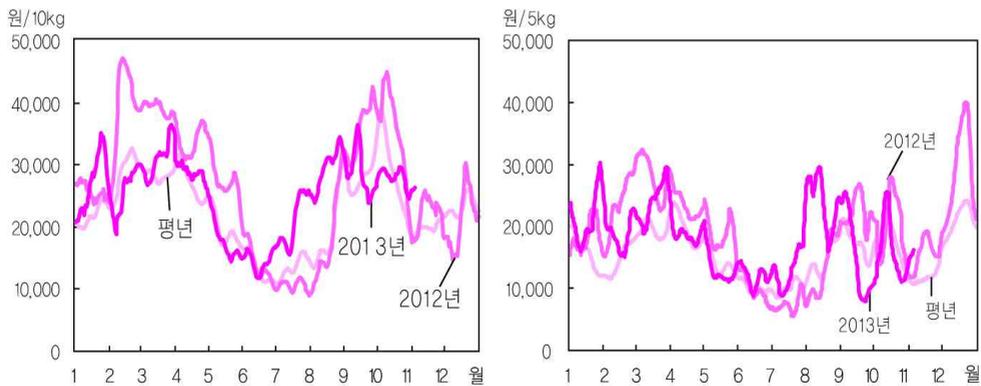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만 3,000원으로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6% 높았음.
- 4/4분기에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앞당겨지고 신규재배 확대 및 기존 농가의 재배규모 증가로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상여건이 양호하다면 4/4분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2만 500원, 8월 2만 9,500원, 9월 2만 9,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6,4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3%, 32% 높았음.
- 3/4분기 일반토마토 7~9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3% 적었고, 평년보다는 9% 많았음. 이는 주출하지인 강원에서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확대되었지만 7월 장마와 8월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7월 1만 2,900원, 8월 2만 4,200원, 9월 1만 6,2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만 7,800원으

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3%, 24%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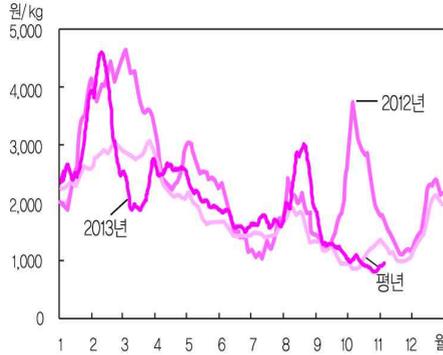
- 3/4분기 방울토마토 7~9월 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12% 적었고, 평년 동기보다는 7% 많았음. 이는 강원과 경기지역에서 여름철 장마와 고온으로 병해와 병해충 피해로 작황이 작년보다 부진했기 때문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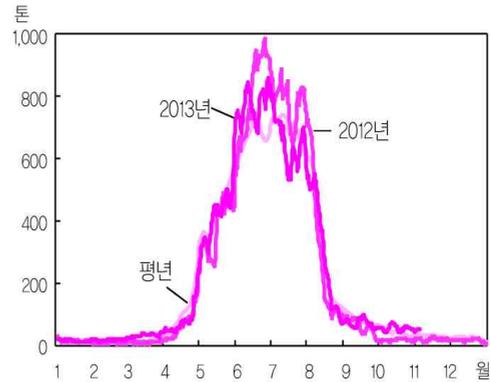
- 10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에 2만 6,000원으로 작년(3만 5천원)보다 26% 낮았음. 전반적인 재배면적 증가와 9월 기상여건 호조로 출하량은 작년보다 41% 많았음.
- 10월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에 1만 5,800원으로 작년(2만 100원)보다 21% 낮았음. 출하량은 강원지역의 작황호조로 작년보다 35% 많았음.
- 일반토마토는 주산지인 부산에서 축성작형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하는 재배면적이 확대된 강원지역에서 마지막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작년 태풍피해를 입었던 호남과 충청에서 올해는 평년수준 이상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울토마토는 주출하지인 강원 춘천에서 작황이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되어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정식은 주산지인 충남 부여에서 신규 수경재배 면적 확대로 전반적인 재배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청과 호남지역은 축성작형의 대추형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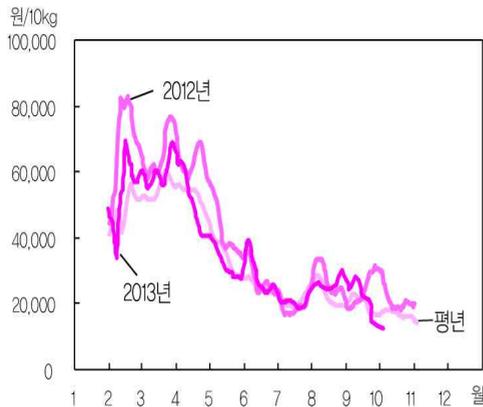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650원, 8월 2,460원, 9월 1,31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800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각각 15%, 25% 높았음.
- 3/4분기 반입량은 작년대비 4% 적었음. 수박 반입량 감소폭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것은 금년 지속된 더위로 수박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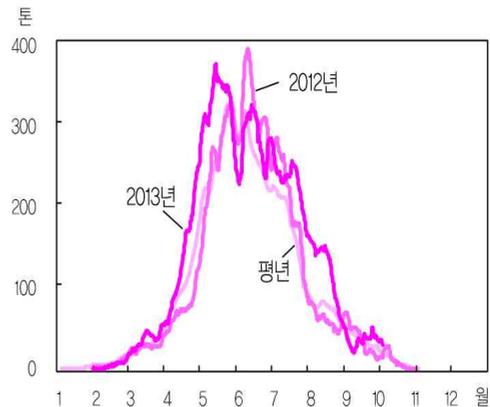
- 10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93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6%, 11% 낮았고, 반입량은 1,410톤으로 작년보다 두배 가량 많았음.
-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영남지역 11~12월 정식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5.5. 참외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동향

- 참외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2만 400원, 8월 2만 6,100원, 9월 2만 2,4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낮지만 평년 동기보다 3% 높았음.
- 3/4분기 반입량은 작년대비 40% 많았음. 이는 금년 대과중 품종 재배가 늘어 난데다 참외 주산지의 기상이 좋아 참외 단수가 증가하여 출하량이 많아졌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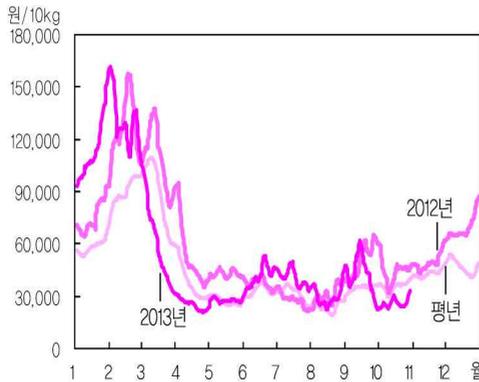
5.6. 풋고추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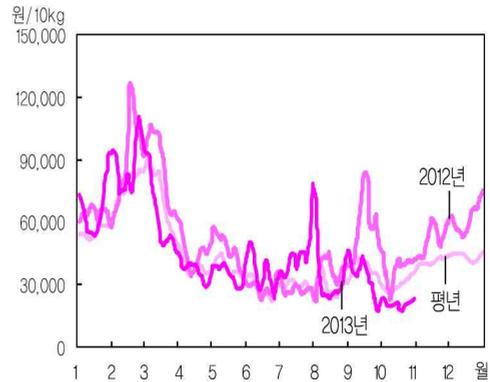
- 청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600원, 8월 3만 900원, 9월 4만 1,8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3만 7,800원으로 작년보다 3%, 평년보다는 26% 높았음.
- 청양풋고추 주 재배지인 강원 지역에서 15일 이상 지속된 장마로 출하 작업이 지연되고 착과가 불량하여 7~8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각각 8%, 5% 적었음.

그러나 8월 중순이후 작황이 회복되고 추석 명절이 끝난 9월 하순의 출하량 증가로 9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21% 많았음.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8~2012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일반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2,400원, 8월 3만 5,800원, 9월 3만 2,9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3만 7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낮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4% 높았음.
- 일반풋고추 7월 반입량은 강원지역에서 지속된 장마로 인한 병해 및 생리장애 발생으로 작년보다 24% 적었음. 반면 8-9월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출하량이 증가하여 8-9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각각 5%, 14% 증가함.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6,100원으로 작년보다 40% 낮았고, 평년보다는 28% 낮았음. 10월 일반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30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 32%의 낮은 수준을 형성하는 등 하락폭이 컸음.
- 4/4분기는 강원지역 출하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10월 초 낮은 풋고추 시세로 호남, 충청 등 일부지역의 출하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10월 하순 이후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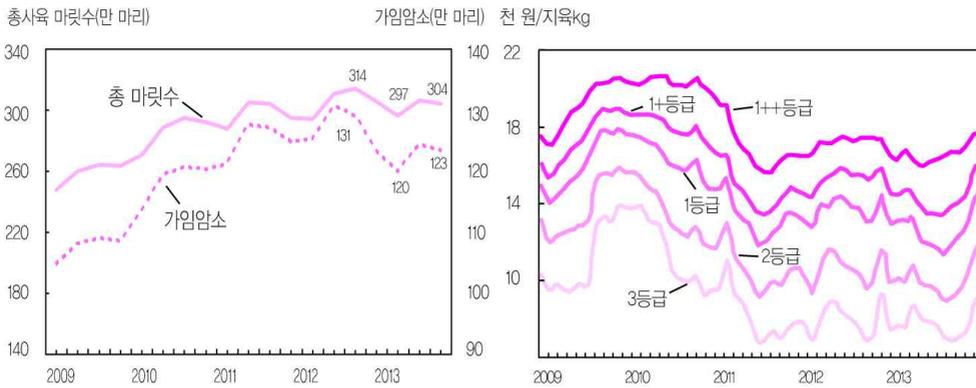
- 청양꽃고추 10~11월 정식면적은 영남지역에서의 가지, 토마토 등으로의 품목 전환으로 작년보다 3% 축소될 것으로 조사됨. 반면 4/4분기 출하량은 9월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꽃고추 10월 정식면적은 영남 일부지역에서의 정식시기 조절 및 타품목으로의 전환으로 작년보다 2%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11월 정식면적은 작년 출하기 녹광꽃고추 시세가 타품종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⁹⁾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도축이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여 9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6월(306만)보다 0.7% 감소한 304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314만 마리보다 3.2% 감소).
- 추석과 할인행사,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3/4분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11,806원/지육kg보다 13.6% 상승한 13,412원임(전년 동기 13,788원보다 2.7% 하락).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추석 이후 한우고기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9월 14,656원보다 2.4% 하락한 14,298원이었음. 그러나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 유통업체 한우고기 재고 부족 등으로 작년 동월 13,186원보다는 8.4% 상승하였음.
- 도축이 증가하여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9월 304만 마리보다 6% 감소한 286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306만 마리보다 6.5% 감소).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김진년 연구원(forever852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 이 작성하였음.

-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와 대체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11~1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7~9월 13,412원보다 1~8% 상승한 13,500~14,5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3,290원보다 2~9% 상승).

●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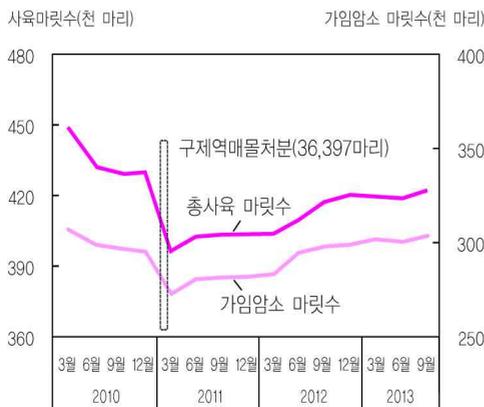
- 한우 할인행사가 종료될 경우 쇠고기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함.
-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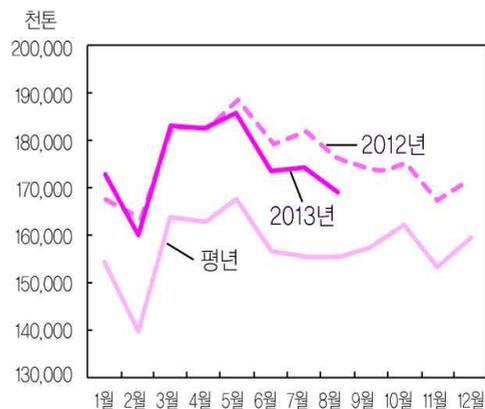
	2013. 9월(A)	12월(B)	B/A
사육 마리수	304만 마리	286만 마리	-6.0%
1등급 가격 (지육kg)	7~9월 13,412원	10~12월 13,500~14,500원	0.7~8.1%

6.2. 젓소

【 사육 동향 】



【 원유 생산 동향 】



● 3/4분기 동향

- 9월 젓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42만 2천마리, 가임암소는 1.9% 증가한 30만 4천 마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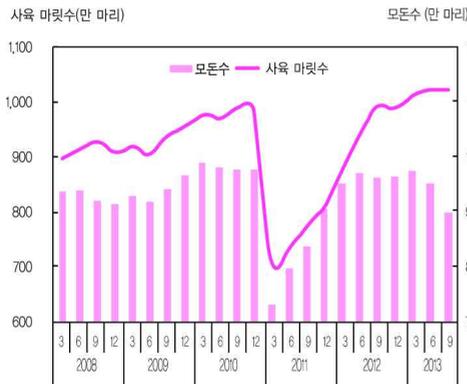
- 2013년 7~8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34만 3천톤이었음. 한편 3/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32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함.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12월 원유 생산량은 2012년 수준인 51만 2천~51만 7천 톤(-0.6~0.4%) 전망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9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6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한 1,019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음(통계청).
- 도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하였지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돼지고기로 대체되어 3/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당박 1kg 기준 3,993원으로 전년 동기 4,018원보다 0.6% 하락에 그침.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여름철 수태율 저하로 자돈 생산 마릿수가 감소하여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9월보다 5% 내외 감소한 960~970만 마리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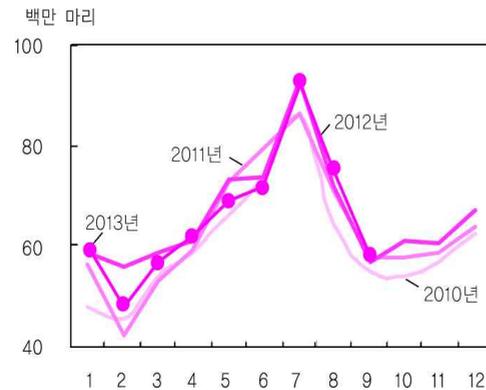
-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산물 소비대체 효과도 존재하여 4/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3,218원)보다 높은 탕박 기준 3,400~3,500원/kg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모돈 감축을 위해 지연시켰던 후보모돈의 조속한 입식으로 생산성 낮은 모돈 교체 및 모돈 생산성 유지 노력
- 다양한 요리법 개발 및 보급, 국내산 원료육을 이용한 육가공품 소비, 돼지고기의 기능성 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으로 돼지고기 수요 확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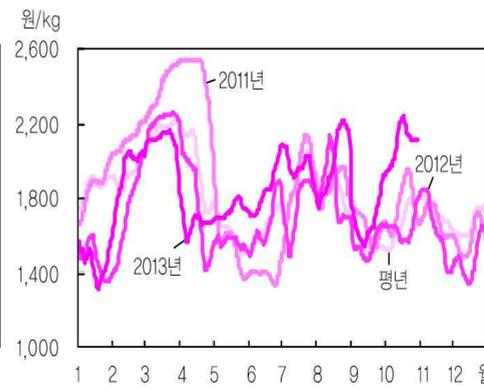
6.4. 육계

【 도계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주: 평년은 2008~1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3/4분기 동향

- 2013년 3분기 육용 종계 노계 도태가 증가하여,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3분기 도계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8% 증가한 2억 2,610만 마리임.
- 8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보도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육류 소비

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수산물 대체 소비로 닭고기의 수요가 7.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3분기는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였지만, 닭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013년 3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0% 상승한 1,941원/kg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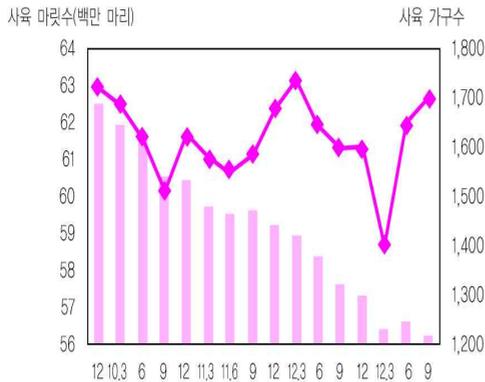
- 2013년 1분기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9.7% 감소하여 내년 4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과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수준으로 전망됨.
- 2013년 4분기는 닭고기 공급 감소로 평균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10월: 1,900~2,100원/kg, 11월: 1,800~2,000원/kg, 12월: 1,700~1,800원/kg)

● 대책 방향

-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낮지만 종계 노계 도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정치와 다르게 상승할 수 있어, 지속적인 종계 노계 도태가 필요한 시기임.
-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으므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농장 관리로 질병을 예방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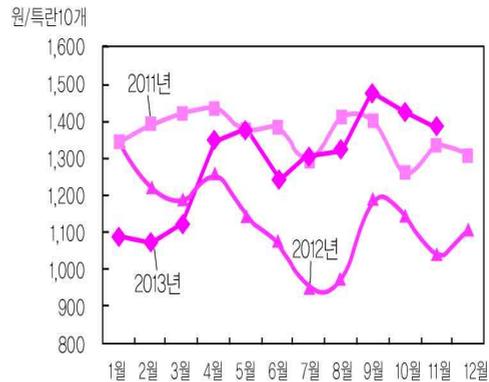
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협중앙회

●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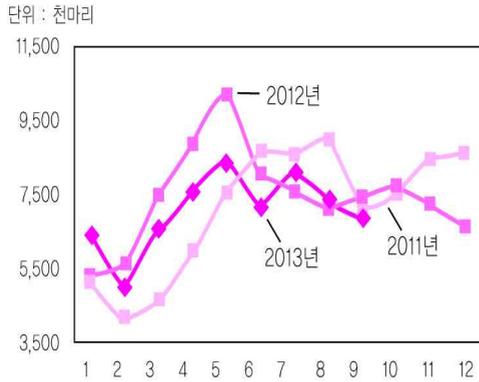
- 2013년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6,267만 마리였음.
- 3분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25.1% 증가한 988만 마리였으며, 3분기 산란 노계도태는 전년보다 4.9% 감소한 679만 마리였음.
- 계란 생산량 감소 및 소비 증가로 3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2% 상승 1,363원(특란 10개)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분기 산란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4분기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4,614만 마리로 전망됨.
- 7~9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 증가와 산란 노계 도태 마릿수 감소로 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6,158만 마리로 전망됨.
- 2013년 11월(4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1,386원(특란 10개)으로 전년 동월보다 33.3% 상승함.
- 계란 공급량 감소 및 수요 증가요인 부재로 4분기 계란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증가한 1,100~1,3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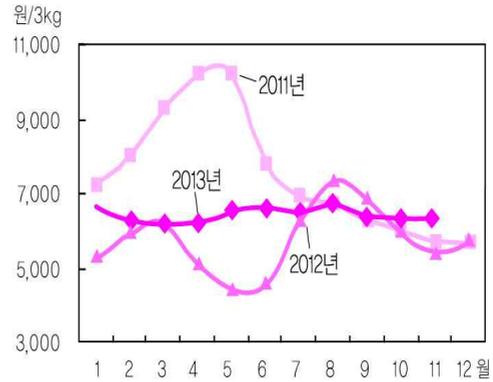
6.6. 오리

【 오리 사육현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3/4분기 동향

- 2013년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1,225만 마리로 전년보다 2.9% 감소하였음. 그 중 종오리는 114만 마리로 전년보다 14.4% 감소하였음.
- 오리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0.5% 증가한 2,242만 마리였으나, 오리고기 수요 증가로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9.1% 상승한 6,625원/3kg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8, 9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7% 감소한 9만 5천 톤이었음. → 10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4분기는 오리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 고기 공급 감소 예상되어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4분기 오리가격은 전년 대비 2.1~10.9% 상승한 5,800~6,3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스마트 농업의 사례와 발전방안
- ②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특별 주제 1】

스마트 농업의 사례와 발전방안*

김윤형*

1. 서론

- 현대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며 단순한 먹거리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은 농업가치사슬 전반에 있어 IT 등 융합기술 접목을 통해 고기능·고효율을 달성함으로써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생산비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농촌생활의 편리성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함.
- 본고에서는 스마트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스마트 농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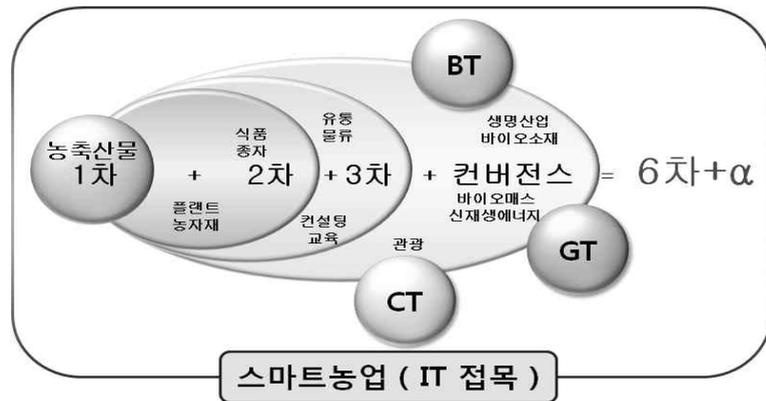
- 최근 우리농업의 성장을 위해서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1차(작물생산 및 가축사육 등) × 2차(가공, 유통) × 3차(체험·관광) = 6차 산업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농업은 6차 산업에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 등을 포함하여 6차+a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연구위원(yonhk2@krei.re.kr)

** 본고는 2013년 11월에 발간된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농업이 6차 + α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스마트 농업은 IT 기술이 농산업(6차 + α)과 융합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 스마트 농업이 1차, 2차, 3차에 이용되어지고 더 나아가 BT, ET 등에 이용되어야 함.
- 또한 스마트 농업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GIS 및 농촌지역의 정보와 결합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스마트 농업 적용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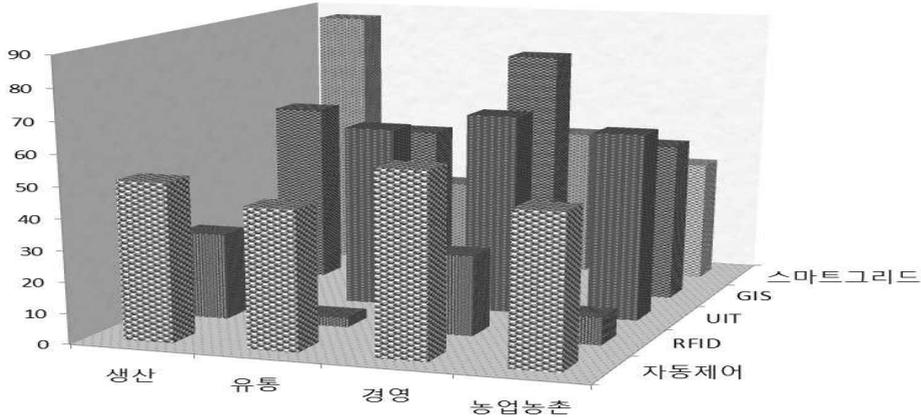
3. 농업·농촌 부문과 스마트 농업의 융합

- 스마트 농업의 구현으로 생산·유통·소비·농업·농촌 부문에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친 생산성·효율성·품질 향상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생산부문에서는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등으로 스마트 농장이 탄생하고 있음.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실시간 영농정보를 활용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영농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병해충관리에 관한 정보를 컨설팅 담당자와 농가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는 영농활동에서 비용절감과 영농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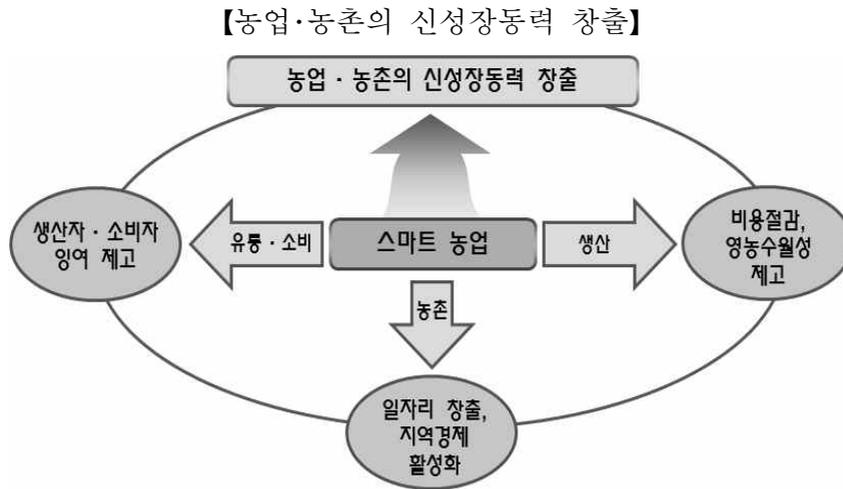
- 유통부문에서는 새로운 정보기기를 통해 시장에 직접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경매가 시작되고, 농산물에 RFID를 장착하여 생산 및 유통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GIS를 이용하여 구매시기와 구매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유통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임.
- 소비부문에 있어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스마트 소비가 가능해지고, 도-농간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손쉬운 이력추적과 농산물 소비 관련 종합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잉여가 발생하게 됨.
- 농촌분야에서는 지역의 실제 날씨를 반영한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농촌 관광정보의 제공은 농업·농촌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GIS를 통해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촌 관광 등 수요증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농촌 활동에 스마트 기술 적용 】



4. 스마트 농업의 구현,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원 창출

- 스마트 농업을 통해 비용절감 방안으로 생산정밀화와 경영선진화가 필요함. 생산정밀화는 농수축산 현장에 RFID/USN 기술 접목, 최적 생장(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음. 경영선진화는 생산과정에서 정밀농업(센싱)을 통한 품질의 균일화 및 효율적인 경영 계획을 활용한 경영비를 절감과 영농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스마트 농업의 확대를 통해 소비안전성 및 소비자 잉여를 창출할 수 있음. 유통과정에서 RFID·QR 코드 기반의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 이력관리를 통한 소비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음.



- 농업·농촌 부문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함. 스마트 농업이 지역의 부존자원,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특성 등을 융합시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용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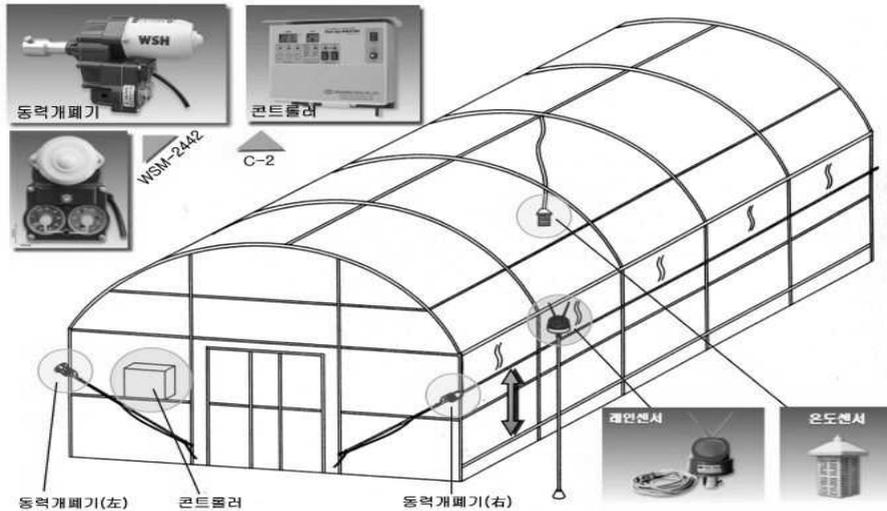
5. 분야별 주요 사례

5.1. 스마트 원예 (온실 자동제어)

- 원예산업에서 스마트 농업이란 원예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원예농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생산 혁신을 의미함.
- 온실 자동제어에는 각종 센서, 컨트롤러, 동력 개폐기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고 있음.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가스 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온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타이머를 활용하여 작동 시간을 예약하거나, 비닐하우스 내의 습도가 컨트롤러

에 사전에 입력한 습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개폐기가 작동하여 비닐하우스 환경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개요】



자료 : 우성하이텍(www.wandw.net)

- 최근 센서, 자동 개폐, 양액 공급, 원격 관리 등이 통합된 복합 제어 장비도 국산화 되어 있음.
 - 온습도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냉난방 장치를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천장이나 측창을 자동으로 개폐하여 온습도와 가스농도를 조절하는 설비도 개발·보급되고 있음.
 - 양액재배 시설의 경우 양액 내의 유효 성분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양액 내 유효 성분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설비도 활용되고 있음.
 -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설 내 환경 변화 정보를 원거리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음.

【복합환경 제어 네트워크】



자료 : 우성하이텍(www.wandw.net)

- 온실 자동 제어 장비는 시설 재배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의 작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환경을 자동 제어 장비를 통해 유지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생산 수량을 늘이고,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기온 급락에 의한 동해 등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온실 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온실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5.2. 스마트 축산 (Pig Plan)

- 피그플랜은 양돈장의 번식돈, 육성돈을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농장의 사양

관리와 질병관리를 지원하며, 농장의 번식성적과 함께 사료업체, 도축장등 타업체와 연계를 통한 사료거래내역 및 출하내역을 이용 개별농장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분석 비교하여 해당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어 검증은 마친 양돈생산 경영관리지원 통합 시스템임.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은 5개 제품이 있음.
 - (주)이지팜에서 운영하는 피그플랜을 사용하는 농가수는 약 520개 농가로 가장 많으며, 퓨리나사료에서 운영하는 돈컴을 사용하는 농가수가 120여 농가로 그 다음임.
- 전산관리를 하는 농가는 전체 22.4%였으며, 5,0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60.9%인 반면, 1,000두 미만의 농가는 14.1%에 그치고 있어 규모가 큰 농가의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품명	공급업체	사용농가수	비고
피그플랜	(주)이지팜	520여 농가	· 인터넷 웹버전으로 전국농가 사용 중 · u-IT사업과 접목한 시범 사업 추진
피그챔프	정P&C	30여 농가	·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발한 도스버전으로 현재 유지보수가 안됨 · 공급업체에서 사업 중단 상태
돈컴	퓨리나사료	120여 농가	· 윈도우 PC용으로 농장간 비교분석이 안됨 · 산출 공식 표준화 안됨
돈스	농협중앙회	40여 농가	· 입력의 어려움, 산출 공식 표준화 미비 · 보고서 기능의 약화로 현재 사용농가 미비
시바	애니인포넷	60여 농가	· 네델란드 제품을 한글화하여 선진에서 사용 · 윈도우 PC용으로 농장간 비교분석이 안됨

5.3. 스마트 임업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 산림공간정보 시스템은 산림과 관련된 각종 위치와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이를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인적자원의 통합적인 시스템임. 구체적으로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과 산림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를 의미함.
 - 세부적으로 산지정보시스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가로수 관리시스템, 산림항공검색시스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지정보종합프로그램은 산림기본 5개 주제도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여기에는 수치지도 및 주제도 관리시스템(구축, 조회, 편집 등)기능과 사용자와 관리자형 DBMS를 포함하고 있음.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은 국유림 경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에 관련된 과거의 대장자료를 전산화하고 국유림 임소반도를 기준으로 공간정보와 대장자료의 속성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은 10년 단위로 수립·실행되는 국유림 경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의 관리를 지원함.
- 웹기반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GIS를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별 지형조건, 산림의 상황과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임. 분석 결과에 따라 4가지 등급의 경보 기준을 예보함.
- 가로수 조성·관리 자료는 각 지자체별로 대장을 작성하거나 도로관리시스템상의 기초 데이터 일부에 불과하여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관련 계획수립에 활용되지 못하였음. 가로수 관리시스템은 전국 가로수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통합하여 중앙부서 차원에서는 전국 가로수의 현황을 신속히 과

약할 수 있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산림항공사진 검색시스템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촬영한 흑백항공사진을 스캔하여 정사보정과 보안처리를 거쳐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인트라넷 환경에서 산림관련 벡터 주제도(임상도, 산림입지도 등)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웹 지리정보시스템임.
 - 이는 38,312매의 낱장항공사진(1:15,000 축척)과 697매의 정사항공사진(지형기복의 왜곡을 보정한 항공사진, 1:25,000축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사태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예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사태위험지 분포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대책 수립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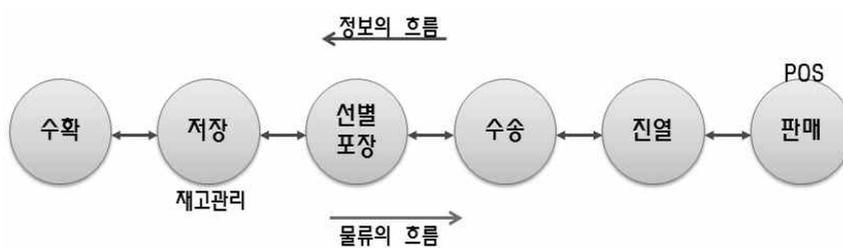
5.4. 스마트 유통 (공급사슬관리 정보시스템)

-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 부문의 혁신도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 농업에 포함됨.
 - 바코드·QR코드와 같은 광학인식기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은 이미 농산물 유통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자동분류기(digital sorter), 자동저장반출장비(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ing System) 등 공산품 유통에서는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유통 체계가 농산물 유통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공급사슬관리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 유통과정을 정보시스템으

로 연결하여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경영 방식으로 공산품의 유통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음.

- 바코드 인식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자료(POS : Point Of Sale)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물류센터로 집계되고, 이 정보는 다시 공급업체에게 전달되어 생산과 유통, 소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공급사슬관리체계임.
- 공산품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인 원재료 공급단계에서부터 공급사슬관리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은 소매점과 물류센터 사이에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공급사슬관리 체계】



5.5. 스마트 지리정보(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

-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공간 기술을 바탕으로 ICT 응용기술 발전시켜 삶의 질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GIS는 초고속 통신망과 컴퓨터기술, 각종 지리정보(공간의 특성: 토양, 기후, 수문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농업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줄 수 있음.
- 단순한 지도제작 작업을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던 GIS는 최근 모바일 기

술 등의 발전과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의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이제 GIS는 공간정보처리기능의 단계를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간정보와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분석 정보를 공유, 제공하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정밀농업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지별 토양정보와 작물별 재배적지, 작물재배방법, 병해충 발생 생태와 방제법, 토양분석결과 및 최근까지의 기상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위성영상을 탑재하여 손쉽게 땅의 위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토양 특성에 맞는 농작물의 선택, 토양이용추천, 배수등급, 시비처방과 관련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여 농업인, 귀농인들이 영농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

● 강우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임.

-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폭설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 유실, 비닐하우스 파괴 등에 대한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은 2012년 전국 200개 농촌마을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현재는 250개 농촌마을이 수록되어 있음. 본 스마트폰용 앱은 '길따라, 맛따라, 바람따라 시골여행'이라는 앱으로 무료로 제공하였음.
- 앱은 테마, 지역, 검색, 추천 등 4개 메뉴로 구성되었음.
 - 농촌을 마을별로 소개하고, 행사와 축제, 시설, 경관, 자연환경, 농특산물, 전통 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함.
 - 테마 메뉴에서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알거리, 체험거리 등 7가지 주제별로 마을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지역메뉴로 들어가면 10개 시·도별로 나눠 수록돼 있음.
 - 또 검색 메뉴에서 주소, 마을이름, 마을자원 등을 입력하면 가려는 마을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추천메뉴를 클릭하면 농촌진흥청이 추천하고, 행사·축제가 열리는 마을을 알 수 있음.
- 앱에 처음 소개된 전국 200개 농촌마을은 농진청에서 지정한 전통테마마을 141곳과 농촌어메니티 조사를 통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마을 59곳임.
 - 시골여행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농촌체험'이라는 앱으로 이용되고 있음.

6. 분야별 발전 방안

- 원예 부문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현재 시설원예나 과수 부문에서 주로 생산비 절감, 노동 부담 절감, 고품질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고 있다. 향후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이 필요함.
- 축산 부문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전달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생산부문의 IT를 이용한 가축 환경 모니터링·제어체계 및 성장환경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한 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가공에서의 IT기술을 이용한 축산물 물류정보 융합기반 유통 선진화 기술 도입 필요함.
- 임업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임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앱 개발, 사용자 능력 배양 등의 시급한 선결 과제임.
-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품목별 표준은 농산물의 유통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공동선별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리정보는 단일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활력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귀농·귀촌지원, 농촌생활 지원,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와 원활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위해 첨단화 된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에 대한 IT 활용에 관한 교육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 기존 농식품 분야 IT 융합 관련사업의 운영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IT 융합 분야의 정부 R&D 투자 확대 및 실용화 제고를 위해서는 R&D투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R&BD 방식의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별 주제 2】

귀농·귀촌 동향과 전망*

김정섭*

1. 서론

- 최근 몇 년 사이의 귀농·귀촌 인구 급증 현상을 배경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귀농·귀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폭증한 것은 근년의 일이지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꾸준한 현상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귀농 가구 수는 1만 1,200가구(귀농 인구 19,657명)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함(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2013).
- ‘귀농·귀촌’은 그것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는 도시민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각기 다양한 이유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동기는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른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 추구’, ‘은퇴 후 노후생활 기반 마련’,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모색’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뉨. 한편, 정부는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도시민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낮추고 귀농·귀촌 현상이 농촌 지사회의 통합과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대응을 요청받고 있음(김정섭 등, 2012b).
- 이 글에서는 귀농·귀촌 인구 동향을 살펴보고, 미흡하나마 향후 추세를 전망하고, 관련된 법제 정비 방향과 정책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연구위원(jskkjs@krei.re.kr)

2. 귀농·귀촌 인구 동향과 전망

2.1. 농촌 및 귀농·귀촌¹⁾ 인구 동향

- 1970년대 이후 감소하기만 했던 농촌 인구 변화 추세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함. 2010년 농촌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함. 그런데 같은 농촌 지역에서도 읍과 면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
 - 읍 인구는 1995년 이후로 증가한 반면에 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음. 읍 인구 1990년 360만 명에서 2010년에는 420만 명
 - 면 인구 같은 기간 동안 750만 명에서 456만 명

【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 추세 】

단위: 천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70 ~ '10)
전국	31,435	34,679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8,580	54.5%
농촌	18,504	17,906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758	-52.7%
읍	2,850	3,720	4,537	4,814	3,602	3,481	3,742	3,923	4,200	47.4%
면	15,654	14,185	11,461	9,187	7,498	6,081	5,601	4,781	4,558	-70.9%
도시	12,931	16,773	21,409	26,418	32,290	34,992	36,642	38,338	39,823	208.0%
농촌 인구의 비율	58.9%	51.6%	42.8%	34.6%	25.6%	21.5%	20.3%	18.5%	18.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 이 글에서는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동)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모든 인구 이동'을 '귀촌'이라고 정의한다. '귀촌'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다. 귀농 및 귀촌 인구를 매년 조사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 조사'에서는 '귀촌'을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로 정의하되 '사업자,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나, 그 같은 정의는 학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농촌 인구 비율은 최근 40년 여 동안 빠르게 하락하다가 2005년 이후 18% 대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임. 수 십년 동안 계속된 농촌 인구 감소 추세가 거의 멈추고 앞으로는 미세하지만 증가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거론됨(김정섭 등, 2012a). 이러한 농촌 인구 감소 추세 완화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촌의 합계출산율, 농촌 지역으로의 순유입 인구 증가 등에 기인함.
- 귀촌, 즉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도 변화를 보임. 2010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기준으로 도시(읍)에서 농촌(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 이동 총량은 약 92만 5,125명임. 그 반대 방향의 인구 이동 총량 82만 9,814명에 비해 훨씬 많았음. 2005년 이후로 귀촌 인구 총량은 약 92만 명 내외의 안정된 기조를 유지한 반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반대 방향의 인구 이동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짐작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

단위: 명

구분	동→읍 (A)	동→면 (B)	동→읍·면 (A+B)	읍→동 (C)	면→동 (D)	읍·면→동 (C+D)	(A+B) /(C+D)
2001년	433,014	547,565	980,579	375,899	555,829	931,728	1.05
	(4.7%)	(5.9%)	(10.6%)	(4.0%)	(6.0%)	(10.0%)	
2005년	441,606	482,584	924,190	422,535	501,766	924,301	1.00
	(3.7%)	(4.0%)	(7.7%)	(3.5%)	(4.2%)	(7.7%)	
2010년	451,297	474,828	926,125	378,937	450,877	829,814	1.12
	(4.0%)	(4.2%)	(8.3%)	(3.4%)	(4.0%)	(7.4%)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 최근 들어 귀촌 인구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임. 2005년에 귀촌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20대 연령층이었음. 그런데 2010년에 와서는 변화가 있었음. 30

대 연령층이 그 자리를 차지함. 그 구성비는 21.4%임. 2010년의 귀촌 인구 가운데 4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2005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

【 귀촌 인구 이동의 연령 분포 】

단위: 명

연령대	2005년		2010년	
	동→읍·면	읍·면→동	동→읍·면	읍·면→동
0~9세	124,751	129,887	100,973	92,899
	(13.5%)	(14.1%)	(10.9%)	(11.2%)
10~19세	89,970	92,072	98,451	88,387
	(9.7%)	(10.0%)	(10.6%)	(10.7%)
20~29세	209,131	244,862	177,352	185,503
	(22.6%)	(26.5%)	(19.1%)	(22.4%)
30~39세	202,359	198,366	197,968	176,223
	(21.9%)	(21.5%)	(21.4%)	(21.2%)
40~49세	133,354	113,410	147,078	121,050
	(14.4%)	(12.3%)	(15.9%)	(14.6%)
50~59세	74,582	56,931	104,134	78,582
	(8.1%)	(6.2%)	(11.2%)	(9.5%)
60세 이상	90,043	88,773	100,169	87,170
	(9.7%)	(9.6%)	(10.8%)	(10.5%)
전체	924,190	924,301	926,125	829,814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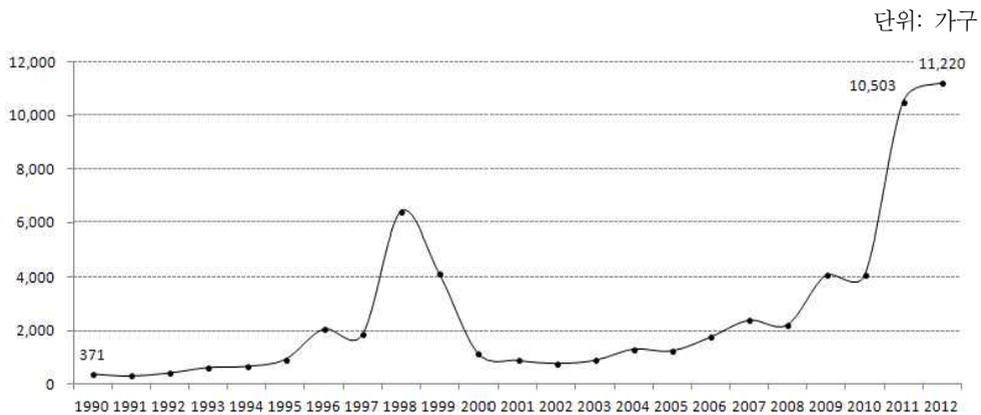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 2012년 귀농 가구 수는 1만 1,200가구를 기록했는데, 2010년 이후의 폭증 추세의 결과이기도 함. 이처럼 귀농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들 수 있음.
 - 첫째,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파편화된 인간관계와 급여 생활자들이 느끼는 도시자본제적 일상의 피로에 대한 반작용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과 낙관' 그리고 '생태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고 있음.
 - 둘째, 도시의 노동시장 구조가 불안정해짐. 만성화되고 있는 고용 불안에 대

한 대안으로서 귀농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짐. 도시 노동시장에 대한 외부 충격이 귀농 인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귀농 인구가 급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 가능함.

- 셋째,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는 농촌 출신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 대책’으로 귀농을 려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음.

【 귀농 가구 수 추이(1990~2012년) 】



2.1. 귀농 인구 전망

- 향후의 귀농 인구를 전망하는 데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실정임. 여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귀농 가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추정하려 시도함. 최근 3년 동안의 자료에서 귀농 인구를 연령층별로 분해하여 그 수를 파악한 후, 잠재적 귀농 인구 계층의 연령층별 모집단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 변화 추세를 향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정함.²⁾

2) 22년치에 불과한 제한된 자료이지만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

- 귀농 인구 변화 추세는 2008년 이후부터 그 패턴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무엇보다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음. 이는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 도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는 연령층별로 그 변화 추세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가구주) 연령층별 귀농 가구 수가 잠재적 귀농 가구라 할 수 있는 전국 (가구주) 연령층별 가구 수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세 종류의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까지 그 비율을 추세외삽 방식으로 구함.³⁾
 - 첫째 시나리오는 전국 가구 중 귀농 가구의 가구주 연령층별 비율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추세를 반영하여 변동한다는 가정(SC 1).
 -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의 추세만을 고려(SC 2).
 - 셋째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서 귀농 가구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의 추세만을 연장하여 계산

【귀농 가구 수 전망】

단위: 가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C1 (2000년 이후 추세 반영)	8,770	9,693	10,616	11,541	12,474	13,421	14,392	15,400
SC2 (2008년 이후 추세 반영)	14,123	16,938	19,809	22,729	25,701	28,743	31,882	35,150
SC3 (2010년 이후 추세 반영)	16,060	20,028	24,087	28,225	32,446	36,772	41,233	45,875

결과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최근의 귀농 가구 급증 추세가 시계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전망치가 나와 기각했다.

- 3) 정확하게는 전국 가구주 연령층별 추계값이 아니라 도시(동) 지역의 가구주 연령층별 추계값을 산입해야 할 것이나, 자료가 불비하여 전국 값을 산입하였다.

- 추정 결과, 귀농 가구 수는 당분간 꾸준히 증가하여 약 2020년경에는 최소 1만 5,400가구에서 최대 4만 5,875가구까지로 증가할 전망이다.
 - 가용한 자료가 제약되어 있어 가구 단위로 추정하였는데, 2012년 귀농 가구 1호당 가구원 수가 약 1.75명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경 귀농 인구는 약 2만 6,950명에서 8만 281명의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이 정도 규모의 귀농 인구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임. 농림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신규취농 가구 수는 약 1만 1,420호에 달함. 같은 해 귀농 가구는 4,067호를 기록함. 신규취농 가구 가운데 35.6%가 귀농 가구인 셈임.

3. 시사점

-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귀농 가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규취농 인구 가운데 귀농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귀농 인구를 농업 부문에 새로이 진입하는 비중있는 신규 경영인력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수적으로는 비중 있는 집단이지만, 전체적으로 50대 및 60대 연령층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모색해야 함.
-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민 1명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9만 원에 이른다고 함(김경덕 등, 2012). 2인 가족 1호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10년 동안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유발된다는 것임. 이는 귀농을 포함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모든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지점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농촌 간 인구 이동에 있어 농촌으로의 순유입 인구가 양(+)이 되는 반전 추세가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이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

속될 것인지, 농촌으로의 순유입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기가 어려움. 2010년의 주민등록인구이동 통계와 김경덕 등(2012)의 연구 결과를 단순하게 조합하면, 2010년의 농촌 순유입 인구 규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1,628억 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음.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므로, 귀촌 정책을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들이 여럿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됨.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 개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여럿 있지만,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관성이나 예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율되지만 상위 법령이 미비하여 대규모 예산 증가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비판이 있음(송재일, 2013).
 - 그 같은 논의 속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법률안이 수 차례 국회에서 발의됨. 가장 최근의 것은 2013년 6월 3일임. 이것은 올 해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됨.
-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 그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은, 정부가 귀농·귀촌 인구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자제하고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

4. 참고 문헌

- 김경덕·홍준표·임지은, 2012.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임지은·박천수, 2012a.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성주인·마상진·임지은, 2012b.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2013.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보도자료(2013년 3월 28일자).
- 송재일, 20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법률”, 「한국 농어촌의 미래, 귀농·귀촌에서 답을 찾다」. 국회 정책토론회(2013년 6월 7일) 자료집.